

5일 Market Index			
코스피	2575.50	코스닥	725.28
	(-5.30)		(-6.47)
금리(국고채 3년)	2.905	환율(원·달러)	1336.75
	(-0.026)		(-5.45)

m-커버스토리

‘中 들보잡 배터리’, 불신 더 키웠다

전기차 포비아

벤츠 전기차 배터리 신뢰 폭 CALT 아닌 파라시스 제품 보유한 특허 수 턱없이 부족 현지서도 화재 문제 일으켜

‘주차시 배터리 충전량 90% 이하만’, ‘선적시 배터리 충전량 50% 이하만.’

지난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기점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마치 전기차가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충전량을 확인하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문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이어 온 전기차 시장이 내연차보다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아쇠가 됐다.

차량 수십대가 불에 타고 그 올리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이슈가 됐지만 벤츠 전기차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당초 알려진 CALT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럭셔리 가치’를 강조해온

벤츠가 자사 전기차 배터리는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제품에 비해 20~30% 이상 저렴하다.

특히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 받았던 파라시스는 중국 현지에서도 기술 등 분야에서 비주류로 취급받는 기업이다. 중국 현지에서 판매량은 10위권에 머무는 기업으로 배터리 관련해 보유한 특허 수도 턱없이 모자라다.

파라시스가 미국에서 인정 받은 특허 수는 약 20개 정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약 3800개), 같은 중국 기업인 CATL(약 2600개)과 비교해도 훨씬 적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도 화

재 문제를 일으키며 이 회사의 제품을 탑재한 3만여 대의 전기차 리콜된 전력도 있다. 미국에서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적용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벤츠 전기차를 모는 한운전자는 “이번 화재 사고로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했더니 BMW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80% 가량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인 벤츠를 믿고 전기를 구매했는데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했다니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벤츠 전기차 차주들은 벤츠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 AI 시대, 지능화된 물류의 흐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흐름(flow)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등의 미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며 그 흐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는 물류와 모빌리티에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물건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고 또 안전하게 이동시키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그 인사이트를 드립니다.

- ◆ 주 제 : AI시대 FLOW전략
이동의 한 순간, 물류의 매 흐름
- ◆ 일 시 : 2024년 9월 25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강 연 :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학과장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차두원 소넷 대표
김준환 스트라드비전 대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법안 처리, 규제개혁 요청

4당 대표 만남 최태원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법안통과·애로사항 촉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들을 연달아 만나며 ‘규제 개혁’ 등 국회 차원의 경제계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대로 만났다.

최 회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를 맞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 통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을 만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처럼 메달을 따오게 할 수 있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러던 비공개 면담에서 최 회장은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사업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야만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청년 문제, 교육·지역 격차 해소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기업 등이 함께 그 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 관련 국가 차원의 전략이 부족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도 최태원 회장을 만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만나서 산업의 가장 핵심인 AI,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들을 연구하고 추진해보자는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보겠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박태홍·윤도현 기자 pth7285@

尹 “민주화의 도시 ‘광주’ AI 첨단도시로 도약해야”

2027년 AI영재고 개교 총력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의 도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5·18민주묘지에 방문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광주 발전 비전으로 ▲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 도시” 비전에 대해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퇴임 후 사저 경호예산 2배 논란… 대통령실 “수도권 부지 단가 반영”
- ▲민중, 김해경 소환조사에 “추석법상에 야 대표 부부 제물 올려” /사진 뉴스1

- ▲한동훈, 이공계 의원들과 조찬… 정부 “의료 개혁” 강행에 쓴소리도
- ▲국민의힘,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 “신빙성 없는 얘기”



- ▲행안장관, 지역상품권 ‘국가책임’ 행안위 의결에 “예산권 침해” /사진 뉴스1
- ▲조국 “김정숙 여사, 극우 시위 탓 은행 못가 ‘대리 송금’”

올해 주식형펀드 수익률 23% '1위' 상승세 탄 '인도'... 투자금 몰린다

중국 대체하는 투자처 급부상 31개 펀드 설정액 1조7485억 연초대비 9152억 가량 늘어
“경제성장 확대, 건전성 개선에 당분간은 증시 상승여력 충분”



ChatGPT가 생성한 인도 ETF 상승 이미지.

고성장 가도를 달리며 중국 대체시 장으로 부상중인 인도가 국내 투자자의 주목을 끌면서 올해 들어 인도증시 투자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인도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전날까지 23%로 1위를 기록, 베트남(16%), 일본(14%) 중국(-2%) 등 아시아권 펀드에 비하면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인도 증시 등에 투자하는 인도펀드 31개의 설정액은 1조7485억원으로 연초 대비 9152억원 가량 늘어났다.

주요 상품별로 보면 인도 증시의 대표지수인 니프티5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KODEX 인도Nifty50'와 'KOSSEF 인도Nifty50(합성)'은 올들어 각각 18.82%, 17.98% 올랐다. 'TIGER 인도니프티50'도 17.75% 상승했다. 이 같은 수익률 증가로 TIGER 인도니프

티50의 순자산은 6610억원으로 올해에만 4482억원 늘었다. KODEX 인도Nifty50도 4971억원으로 3878억원 증가했다.

인도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인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으로 제조업 육성 중심의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을 제쳤다”며 “미·중 갈등이 깊어진 2018년부터 인도 경제 성장률은 신흥국 주요국 대비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7.8%,

2024년 추정치 6.8%, 2025년 추정치 6.5%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사들도 앞다퉀 관련 ETF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오는 10일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출시한다. 인도 시장의 성장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와 'ACE 인도시장대표BIG5그룹액티브'다.

앞서 삼성자산운용도 지난 5월 인도 테마형 ETF 'KODEX 인도타타그룹' 상품을 상장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같은 달 인도 소비자 상위 기업 20 곳에 투자하는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를 선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인도증시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도증시의 성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지원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성장 확대와 재정 적자 목표치 하향에 따른 건전성 개선, 소비 촉진 등으로 인도 증시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원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융위원장- 자산운용업계 간담회

· 일시 : 2024.9.5.(목) 10:00 · 장소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령화 시대, 생애주기별 연금 개발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권 간담회 “사적연금 시장 상품 다양화 위해 국민연금 이어 퇴직·개인연금 혁신”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혁신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한 장기투자형 연금상품을 개발해 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업권을 대상으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장과 1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운용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적연금시장의 경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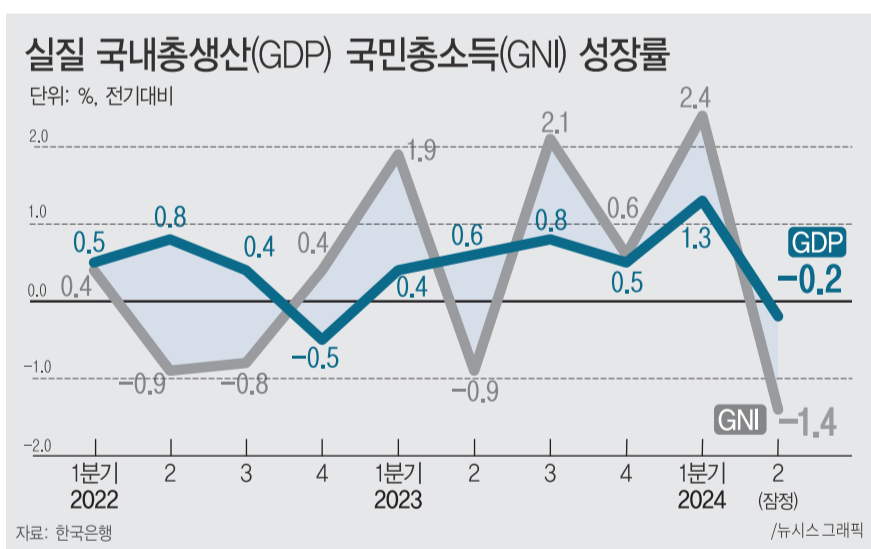
기데이트펀드(TDF) 위주로 펀드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금은 오랜시간 검증된 가장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연금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TDF는 개인별 생애주기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산배분곡선(글라이드패스)에 따라 알아서 조정해주는 자산배분 펀드를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적연금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퇴직·개인연금을 혁신할 계획”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을 구축해 사적연금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국민소득 1.4% ↓... 33개월래 최대폭 감소

한은, 2분기 GNI 559조5000억 총 저축률은 227조, 1.2%p 상승 GDP 0.2% ↓... 6분기만에 감소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2분기(4~6월)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경제 성장률도 같은 기간 -0.2%를 나타내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와 비교해 1.4% 감소한 5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1.1%)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다.

실질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GNI가 감소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여력이 줄었다는 의미다.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실질 GNI는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만큼 교역조건에 따라 손실이나 수익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2분기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가격보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입품목의 가격이 더 오르면서 실질 GNI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분기 총 저축률은 227조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저축비중은 35.2%로 같은 기간 0.1%p 상승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들이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실질 GDP는 지난 2022년 4분기 0.5% 감소한 이후 ▲2023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 ▲2024년 1분기 1.3% 성장했다. 6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하고,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반면 내수(소비·투자) 지표인 민간소비는 의료, 승용차 등 재화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건설투자 또한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7%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면서 1.2% 내렸다.

이날 한은은 2분기 GDP 성장률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경기침체가 가시화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상회하고 있고, 민간소비 증가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침체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전망치 2.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부장은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내수의 경우 최근 기업 실적도 좋아지면서 기업 투자 여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의 경우도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개선되면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감원, PG사·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킷오프회의 은행·보험·카드 등 관리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서 드러난 비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금융협회, 전문가들과 구성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의 킷오프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보험대리점(GA),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를 거쳐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안 전환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내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기반 전력망 구축, 가장 시급한 과제”

>> 1면 '반도체특별법 등...'서 계속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규제개혁 등을 요청하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되어야 글로벌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취재진에게 “오늘 대화의 99%

가 에너지”라며 “신재생에너지라는 흐름이 있고,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두 분)이 공감한 것은 에너지 문제가 정말 첨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태홍·윤도현 기자 pth7285@

AX 실증밸리 조성...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530억 투입

(인공지능 전환)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미래차 산단 그린벨트 해제 지원
물순환 축진구역 지정방안 검토
광천권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정부가 광주를 'AI(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미래차 핵심 부품 전초기지조로 만들어 미래차 소부장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조성과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추진하게 된다. 또 AI 인재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AI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추진한다. AI 과학영재학교는 현재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총 150명(학년당 50명) 규모로 추진된다.

광주에는 기아·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 2개사와 6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고,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산업이다.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황규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지역 민생토론회 중 AI 집적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를 위해 기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 전략사업 선정을 적극 검토해 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30억원을

투입해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인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광주가 미래차 핵심부품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광주 지역 총 220만평 규모 산단을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에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단지 내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규모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2028년까지 신규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과 실증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도시 광주가 미래차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시키고, 대중교통과 안

전한 물 공급 등도 정부가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도달밤 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을 '로컬100' 캠페인, 각종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고,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와 연계·홍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 예정으로 인근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천권역에 정시성이 보장되고 쾌적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해 광주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극심한 가뭄 때 광주는 영산강의 하천수를 먹는 물로 활용한 바 있어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 광주시를 '물순환축진법(2024년10월25일 시행)'에 따른 물순환 축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1면 '민주화의 도시 광주...'서 계속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찾고 싶은 도시 만들 것"

윤 대통령은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의 AI적용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베드 활용 ▲광산구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입지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비전과 관련하여서는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 중심 도시"라면서 2027년까지 1181억원을 들여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또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이울러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교류의 실질적인 허브가 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활력넘치는 도시' 비전과 관련해선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을 통한 복합쇼핑몰 교통접근성 개선 지원 ▲광역중추병원 육성 ▲영산강수질개선 및 수량 확보를 통한 식수원 활용 등을 세부 지원 사업으로 소개했다.

/서예진 기자 syj@

모빌리티업계, AI기술 도입 속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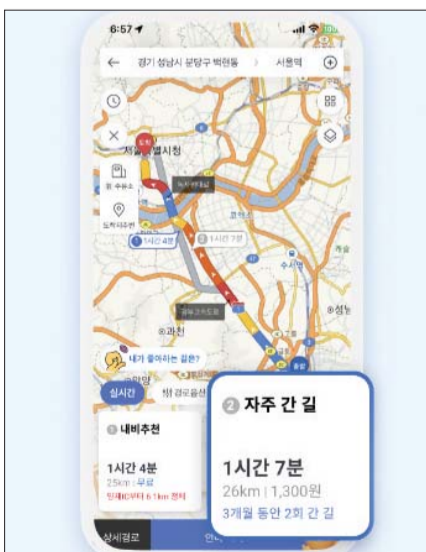
첨단기술 통해 서비스 영역 확장 카카오 선호 경로 반영 길 안내 티맵 운전자·대중교통 서비스 통합

모빌리티 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AI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이용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내비에 이용자의 선호 경로를 반영한 길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이전에 운행한 출도착지를 카카오내비에 입력하면 '이전에 간 길', '자주 간 길' 등을 추천하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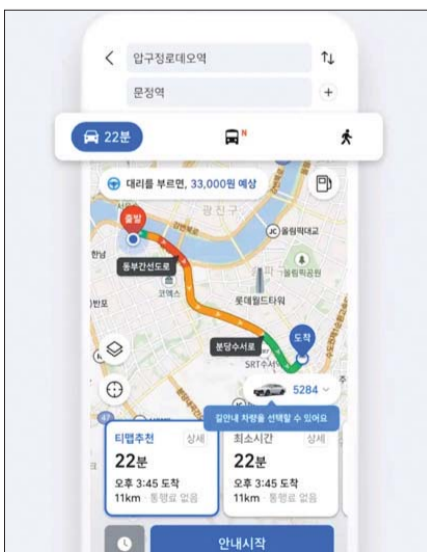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 선호 경로를 반영한 길 안내 업데이트 이후 원하던 기능이었던 사용자 반응



카카오내비 이용자 선호경로 반영 길 안내 기능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이나오는 등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모빌리티 특화 생성형 AI 엔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통합 검색을 확장한 '여행플래너' ▲카카오내비 운행 기록을 확장한 '운행기록 A



'티맵' 소개 이미지 /티맵모빌리티

I' ▲평가 시스템을 확장한 '운행리뷰 AI' 등을 초거대 AI 기반으로 선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선호 경로 추천 서비스' 이외에도 대리운전 수요 예측, 주차장 만차 예측 등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 중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

시 배차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AI 기반 배차 시스템은 호출이 많이 발생하는 요일, 시간대, 출도착지 인근 택시 수요 공급 현황, 과거 운행 패턴 등 30여 가지 변수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최적의 기사와 승객을 매칭해주는 기술이다.

관계자는 "기존 AI 배차시스템과 최단거리 배차시스템을 병행해 택시와 이용자 매칭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최근 'AI 기반 장소 탐색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티맵을 활용해 목적지를 설정한 후 주변 식당이나 명소를 추천받는 방식인 반면, AI 기반 장소 탐색 서비스는 사용자가 목적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티맵 역시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티맵은 지난해 9월 운전자 중심 플랫폼에서 영역

을 확장한 모빌리티 슈퍼앱 '올 뉴 티맵'을 출시했다.

이 앱은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자 중심의 서비스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는 길안내, 주차, 대리운전, 전기차 충전 등의 서비스를,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하철 도착이나 버스 이동시간을 계산해 최적의 경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티맵 관계자는 "출퇴근 길에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이 장시간 지연될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며 "도보 이동이 길어지면 주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티맵모빌리티가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한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티맵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지난해 10월 1471만에서 올해 2분기 1490만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배터리 열폭주 수반, 사실과 달라… 과충전 화재도 오해”

전기차, 진실과 잘못된 정보

열폭주 전이 지연 기술 탑재로 화재확산 방지
외부요인·기타부품 등 화재 발생 가능성 ↑
서울시 전기차 규제 정책, 소비자 불안 가중
관공서 등 출입제한에 소유자 편 가르기 논란

최근 전기차 시장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으로 소비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전자차 화재 원인에서 배터리 결함이 차지하는 비율 등 일부 잘못된 정보와 막연한 오해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전기차 화재 내연기관보다 적어… 무조건적인 열폭주?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기차 화재가 많다’는 인식이 높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는 비전기차와 전기차 합계 매년 4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800건에 이르는 등 하루에 약 13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다.

다만 연도별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만대당 화재 건수는 지난해 기준 비전기차는 1.86건, 전기차는 1.32건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비전기차에 비해 30% 정도 낮은 상황이다.

또 소방청의 화재 통계는 충돌 사고, 외부 요인, 전장 부품 소손 등에 따른 화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초소형 전기차, 초소형 전기화물차, 전기삼륜차까지 함께 집계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제외하면 승용 전기차에서 고전압배터리만의 원인으로 화재가 난 사례는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더 많이 화재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오해다”며 “단순 수치만으로 사실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의 두려움은 ‘무조건적인 열폭주’ 현상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때문에 진압이 어렵고,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이미지.

차량이 전소되어야 불이 꺼진다’는 주장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타 부품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를 수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팩은 고도의 내화성, 내열성을 갖춰 배터리 이외 요인으로 화재 발생 시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으며,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도 최신 전기차에는 열폭주 전이를 지연시키는 기술이 탑재돼 조기진압 시 화재 확산 방지가 가능하다.

지난해 7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전기차 화재의 초진이나 확산 차단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차량 화재 완전 진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오래 걸려 피해가 크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전기차 화재에서 초기 진압은 단시간에 이뤄지더라도 이후 흑시모를 배터리 화학 반응에 대비해 차량을 일정 시간 소화수조에 담가 놓거나 질식포로 덮어 모든 배터리 에너지가 소모될 때까지 관리한다.

현대차·기아, BMS 핵심 기술로 성능 강화
LG엔솔, 세라믹 코팅 분리막 열폭주 차단
SK온, 열전방지·액침냉각 기술 안전성 ↑
삼성SDI, 가스 배출장치 각종 배터리 적용

◆정부 정책 소비자 불신 키워

지난달 서울시가 내놓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발표 후 충전기의 전원을 끄는 지자체와 오피스텔 건물 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전기차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기차 충전 대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관공서와 병원, 아파트 등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거나 충전기 전기 공급을 차단하기도 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소유자 간 편 가르기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정책이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충전량은 총열량과 비례해 화재의 규모나 지속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 화재 원인은 충전량 자체와 관계없는 배터리셀 제조 불량 또는 외부 충격 등에 의한 내부적 단락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충전에 의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상태다.

국내 대표 배터리 전문가인 윤원섭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우리가 100%라고 말하는 것은 안전까지 고려한 수명”이라며 “배터리를 100% 충전하면 위험하다는 것은 일반인이 주로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 소비자 신뢰 확보에 총력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는 소비자 신뢰는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15년 이상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BMS를 개발했다. BMS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자동차가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BMS의 완성도는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기술 노하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며 현대차그룹은 BMS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배터리 3사가 보유한 BMS 기술력도 글로벌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특허정보조사전문업체 WIP에 따르면 2018~2022년 상위 10위의 한국·중국·일본 배터리업체의 특허는 총 1만3500건이며 이중 국내 3사의 합산 특허는 7400건(55%)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세라믹이 코팅된 안전장 강화 분리막(SRS)을 개발했다. SRS는 배터리 내부의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만나는 것을 막아 열 폭주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SK온은 신규 열전이(TP) 방지 기술과 배터리 열관리에 중요한 액침냉각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SDI는 각종 가스 배출 장치를 적용해 고온 가스를 쉽게 배출해 폭발을 방지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평택시 공고 제2024-2908호

보상계획(변경) 공고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 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6.

평택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 시설공사
- 나.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 다. 사업위치 : 평택시 서탄면, 고덕면 일원
- 라. 사업규모 : 통합사업장 Q=470,000㎡/일, 관로 L=18.4km
- 마. 사업기간 : 2024. 06. ~ 2025. 12.

2. 보상내역

- 가. 토 지 : [붙임] 참조 (* 변경사유: 일부 편입 토지 추가 및 면적 변경)
- *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 일부 토지는 분할 전 모 번지(대표 번지)로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합니다.

3. 보상계획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4년 11월 중(예정)
-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입금)
- 다. 보상금산정 :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토지 소유자 추천 시 3인이 평가) * 사·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라.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기 간 : 2024. 9. 6. ~ 2024. 9. 23.
- 나. 장 소 : 게시판(평택시청), 홈페이지 (http://www.pyeongtaek.go.kr), 평택시 경기대로 271, 7층 수도시설과 공업용수시설팀 (☎031-8024-5973)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사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 반도체·바이오·자동차 첨단산업 견인

산업장관 주재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
“투자세액공제 등 정책지원 차질없이 이행”
기업 지속가능 성장 위해 꾸준한 투자 당부

고금리 등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전체 설비투자를 견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4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투자계획 110조원의 44%에 해당한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 투자 약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행 실적이라 평가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연간 투자 계획 중 40% 이상을 이행하며 전체 투자 실적 을 이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조동철 KDI 원장은 하반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달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등 올해 발표했던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종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애로를 해결하면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김익현 삼성SDI 부사장, 남정운 한화솔루션 사장 등 기업인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장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KT 장기고객 감사드림



혜택 보러가기

KT 휴대폰, 인터넷, IPTV의 각 이용기간을 합해 5년 이상 되는 고객님들께 제공하는KT의 고객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쿠폰드림 혜택 OTT할인, 데이터, 지니TV VOD 할인, 멤버십 포인트 등 14종의 쿠폰 혜택
초대드림 혜택 매월 스포츠 관람, 영화 상영회, 캠핑, 공연 등 특별한 이벤트 초대

혜택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장기고객 선정 기준 및 혜택 등 상세 내용은 KT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野,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처리... "지역경제 살리는 법안"

與 "부익부 빈익빈" 지역 차별 상품권 현금살포법 시즌2... 악법 중 악법

野 "1인당 총소득 1.4% 뒷걸음질 할인 인센티브로 가처분 소득 올려야"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 마칠 전망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개정안' 법사위 회부 여부를 심사했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고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며 "243개의 광역 지자체 중 191개 지자체가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돈 많은 광역 지자체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돈 없는 지자체들은 못 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리고 만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소도시나 낙후 지역보다는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심의 국비 편중 지원으로 지역 차별 화폐법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이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신문을 보니까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며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 소득을 지역 골목 경제에 투자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의결 처리 이후 "현금살포법 시즌2"

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 법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 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진정 민생을 위하고 소비 진작을 원한다면 도움이 실질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몇 배는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세부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마음 같아선 추석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현재 상임위의 수위를 보면 추석 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추경호 "종부세·상속세 완화하고 금투세 폐지 추진"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산층, 과도·징벌 세금 완화 강조 금투세 폐지 결정, 빠른 수록 좋아 野 '반도체특별법' 발의... "환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드리겠다"며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이러어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

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른수록 좋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반도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왔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가자"라며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대통령실, 응급의료현장에 1급 비서관 파견 방안 추진

현장 목소리 파악해 정책 반영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 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추석대비 응급의료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대비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소속 비서관들이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머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기만 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4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가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투입해 서 의사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한동훈 "반도체 산업·연금개혁 추진 노력"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4일) 경북 구미 산단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구미를 보통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구미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수도 있도록 당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미루면 국가

적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그래야 구조 개혁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AI 교육이 미래의 VISION!



AI가 바뀌갈 미래
그 미래를 가장 먼저 경험해 보고 배우며 상상해 볼 수 있는 곳
AI 교육시스템으로 미래 인재를 만들어갈 중앙대학교입니다

■ AI-SW 캠퍼스 체계 ■ e-Advisor ■ 챗봇챌리 ■ Rainbow System

CAU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4. 9. 10. (화) ~ 13. (금)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02)820-6393



100일간 최대 年 12%... 금융권 '초단기·고금리 상품' 봇물

〈에쿠온저축은행 '나날이적금'〉

KB스타퀵왕적금 최고 연 10%
삼성생명 6개월 적금 최고 연 8%
모바일·인터넷 가입, 실적 등 요구

자금 유동성 높지만 운용방식 달라
기간 긴 예금·적금이 유리할 수도

금융권이 6개월 이내 만기인 '초단기 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초단기 적금'에 이어 '초단기 저축보험'까지 등장했다. 비대면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고객 이동도 활발해진 만큼, 높은 금리를 앞세워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5일 각 은행 고시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뱅크)과 4개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전북), 3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토스·케이)이 취급하는 상품 중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며 최고 금리가 연 5% 이상인 상품은 15개다.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KB국민은행의 'KB스타퀵왕적금'으로 최고 금리는 연 10%에 육박한다. 이어 광주은행의 '도전 골든100적금'이 연 7.1%

〈최근 판매중인 '초단기' 금융상품〉

취급 기관	상품명	최고금리(연)	기간	우대금리 요건
KB국민은행	KB스타퀵왕적금	10%	100일	자사 앱 사용
광주은행	도전 골든100적금	7.1%	6개월	자사 앱 사용, 신규 고객
에쿠온저축은행	나날이적금	12%	100일	자사 앱 사용
웰컴저축은행	웰컴 디지털카 100일 적금	10%	100일	타사 연계 앱 사용, 신규 고객
삼성생명	삼성 팝콘 저축보험	8%	6개월	자사 앱 사용

/각사

의 최고 금리를 제시해 뒤를 이었다. 은행권 적금 상품 금리가 통상 연 4%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초단기 적금' 상품의 금리는 높은 편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고금리성 '초단기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에쿠온저축은행은 최고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나날이적금'을 판매중이며, 웰컴저축은행도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웰컴 디지털카 100일적금'을 취급하고 있다.

초단기 금융상품 열풍에 보험사도 뛰어들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최고 연 8%의 금리를 제공하는 6개월 만기 저축보험 상품인 '삼성 팝콘 저축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러한 초단기 금융상품은 지난해 4월 한국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최소 만기를 1개월(적금 기준, 예금 상품 최소 만기는 6개월)까지 낮추면서 시장에 처음 등장했다.

초단기 금융상품은 금리 대비 가입 기간이 짧은 만큼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많지 않지만, 가입 기간이 짧은 만큼 자금 유동성이 높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초단기 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것은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상품 비교 및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상품의 유통력을 비교해 복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

이다.

실제 각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초단기 금융상품들은 우대금리 요건으로 '모바일·인터넷 가입', '자사 모바일 앱 반복 사용', '신규 거래·장기간 미거래', '자사 계좌 사용 실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높은 금리를 앞세워 금리에 예민한 '금리 노마드(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고객)'를 끌어들이고, 자사 모바일 앱 및 계좌의 사용을 유도해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달 비용 하락으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 하락이 계속되는 만큼,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가입 기간이 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초단기 금융상품은 자금 유동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만기가 길지 않은 만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 예금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라며 "예금 금리 하락세도 계속되는 만큼,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선 일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진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신한은행 이동점포 뱅버드. /신한은행

신한은행

추석 이동점포 운영 중소 15조 자금지원

신한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경영 및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동점포 '뱅버드'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운영한다. 기간은 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통장정리 등 간단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자동화기기(ATM)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금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15조 1000억원(신규 6.1조 원, 기한연장 9조 원) 규모의 자금을 10월 4일까지 지원한다. 신규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향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돕기 위해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고객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멕시코 영업채널 확장... 몬테레이 사무소 개소

현지 진출 韓 기업 등 지원

하나금융그룹이 멕시코 북동부 지역 대표 산업도시인 몬테레이(Monterrey)에 하나은행 멕시코법인 산하 '몬테레이 사무소'를 개소했다.

멕시코 몬테레이는 미국과 국경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거점을 운용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하나금융은 이번 몬테레이 사무소 개소를 통해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자동차부품 회사 등을 지원한다. 기업과 교민은 물론, 현지 손님도 하나은행 멕시코법인의 금융 상품·서비스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은행 부회장은 5일 "2019년에 멕시코에 진출해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다양



이은행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허태완 주멕시코 대사(네번째), 호세 라몬 카날레스 마르케스 멕시코 금융위원회(CNBV) 부위원장(다섯번째), 엠마누엘 루 누에보 레온(Nuevo Leon) 주정부 차관(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화했다"며 "멕시코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금융 소통 창구, 몬테레이 사무소를 통해 현지 손님까지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몬테레이 사무소의 개소를 기념해 멕시코 자선교육기관인 '찰코 소녀의 집(Villa de las Nin

as, Chalco)' 학생들에게 공학용 계산기 200개를 기증했다.

'찰코 소녀의 집'은 1964년 한국에서 창설된 마리아수녀회가 1991년 멕시코 찰코 지역에 세운 기숙학교로서, 학업의 의지는 강하나 가정 형편 등이 여의치 않은 여학생들을 멕시코 전역에서 선발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전액 무료

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공학용 계산기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전에 조사해 전달한 것이다. 하나금융은 앞으로도 멕시코 현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글로벌 ESG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 집값 24주 연속 상승... 매수심리는 하락세

주간아파트동향

매매가격 전주대비 0.21% 올라
서울숯리버뷰자이 6000만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4주 연속 올랐다. 반면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하락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7일 17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24주 연속 올랐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성동구

(0.55%→0.43%)가 금호·행당동 선호단지, 광진구(0.33%→0.32%)는 광장·자양동 교육환경 양호한 단지, 마포구(0.31%→0.30%)는 대흥·염리동 대단지, 서대문구(0.22%→0.19%)는 홍제·남가좌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송파구(0.44%→0.31%)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서초구(0.50%→0.41%)가 반포·잠원동, 강남구(0.33%→0.30%)는 개포·압구정동 준신축·재건축 단지, 양천구(0.24%→0.20%)는 목·신정동, 영등포구

(0.28%→0.20%)는 신길·영등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숯리버뷰자이'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2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매매가격(19억4000원) 대비 600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뷰신반포'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78㎡가 40억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 만에 2억원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2로 전주(104.0)보다 0.8포인트 내렸다. 8월 둘째 주부터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지속적으로 포착되나 대출 여건 관망,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며 "상대적인 매물소진 속도가 느려지면 상승폭은 전주 대비 축소됐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서울동구고 방문 청소년 금융교육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청소년 금융교육을 위해 강단에 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동구고등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오 회장은 '금융업과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업에 관한 소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에는 1·2학년 재학생 260명이 참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동구고와 1사1교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꾸준히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오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건강한 습관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

IFA 2024



삼성전자 전시관 입구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전시 주제인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전시관 입구 'AI 홈 게이트(AI Home Gate)' /LG전자

'스마트싱스' AI 기술혁신

SAMSUNG

'모두를 위한 AI' 주제... 새로운 일상 제시
보이스 ID·엠비언트 센싱 기능 등 공개

삼성전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통해 진화한 일상과 변화할 미래를 선보인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빅스비 기능을 통해 다양한 명령어를 말해도 가전제품이 한번에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 테슬라와 협업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차량 에너지 서비스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참가해 AI 기술 혁신을 통해 진화한 연결 경험을 유럽 시장에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메세 베를린(Messe Berlin)' 전시장에 위치한 '시티 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업계 최대 규모인 6017㎡(약 1820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모바일 등 최신 AI 제품을 대거 전시

한다. 전시장 입구 초대형 스크린에서는 스마트싱스의 지난 10년간의 발전사와 AI를 통해 변화될 일상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먼저 초연결 시대에 필수 요소인 '보안'을 테마로 한 전시존에서는 기기 간 안전한 연결을 지원하는 '삼성 녹스 매트릭스'와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삼성 녹스 볼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외부인의 임의 접속을 감지한 경우 즉시 차단해 스마트싱스의 보안 수준을 높여주는 '리셋 보호(Reset Protection)' 기술도 선보인다.

또한 태양광을 통해 생성된 전력량과 잔여 에너지량,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전력 소비량을 최적화해 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도 테슬라와 협업하여 전시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제품에 적용된 음성 비서 '빅스비'를 자연어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목소리나 위치를 인식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 ID', '엠비언트 센싱' 기능도 공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AI홈 허브 '씽큐 온' 공개

LG전자

'공감지능' 테마 차세대 가전제품 전시
AI 홈 통한 라이프스타일 체험공간 구성

LG전자가 글로벌 무대서 차세대 인공지능(AI)가전으로 업그레이드된 미래 모습을 구현한다. 사용자의 홈 트레이닝부터 택시 호출까지 돕는 데 이어 아동 케어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AI 홈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공감지능'을 테마로 한 차세대 가전 제품을 전시한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AI홈 허브인 'LG 씽큐 온'(LG ThinQ ON)을 처음 공개한다. 씽큐 온은 집안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해주는 AI홈 핵심 기기다. 사용자가 친구와 대화하듯 씽큐 온과 소통하기만 해도 대화의 맥락이나 주변 환경을 파악해 가전과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한다.

이번 IFA 2024에서 LG전자는 관람객들이 직접 AI홈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했다. 부스 초입을 AI홈 이미지

를 연출하는 약 30m 길이의 미디어아트로 장식했다. 이 공간을 지나면 AI홈을 활용한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AI홈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AI 코어테크(핵심 기술력)'도 선보인다.

AI 코어테크는 모터·컴프레서 등 LG전자의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력에 AI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AI로 제품 사용 환경을 분석해 최적화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끌어올린다.

LG전자는 IFA 2024에서 AI로 에너지 효율 높여 지속가능한 미래 만드는 '친환경 AI홈 솔루션'도 제시한다.

LG전자의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은 AI가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 냉난방 모드를 최적화해 에너지를 아낀다. 낮·밤, 날씨 등 환경에 따라 최적의 효율로 제품을 구동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관리한다.

LG전자 류재철 H&A사업본부장(사장)은 "생성형 AI로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LG AI홈' 솔루션을 앞세워 고객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AI홈 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韓 해상풍력 개발 지지부진... 국제협력 강화해야"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출시

효성중공업 한·중 해상풍력 세미나
국내외 54개 기관 관계자 120명 참석
규제 완화, 中 협력 등 활성화 방안 제시

탄소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외국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활발한 반면 한국은 인프라 부족과 규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5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의 풍력터빈 제조사 상해전기풍력, 독일의 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 슈드와 함께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 2차 한·중 해상풍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효성중공업 고우식 박사는 한국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고 박사는 "한국은 반도지형 특성상 삼면이 바다이기에 해양 면적이 풍부하나 수심이 깊은 지역들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수심은 알지

만 해저 점토층이 두꺼운 해저 지반이 있기에, 실제 해저 지반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해상풍력 개발 초기에는 풍속이 높고 수심이 낮은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경기 인척 지역을 넘어 울산까지 확대돼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해상 풍력 개발 과정이 복잡한 점도 지적됐다. 한국에서의 해상 프로젝트는 크게 타당성 분석, 발전사업 허가, 개별 인허가, 개발 허가, 건설 총 5가지로 나뉜다. 해상풍력 개발 과정의 복잡성과 변동성은 단순히 개발 기간의 장기화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착공 시점이 불확실해지고 이로 인해 풍력터빈의 사양 선정, 해상에서 하부 구조물과 풍력 터빈 설치를 위한 운송 및 설치,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선박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개발 허가 기간 단축 등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국제 협력 파트너로서 해상풍력 개발 경험이 풍부한 중국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해상풍력구조 설치 실적은 37.8GW(기가와트)로 세계 누적 설치 용량 전체의 50%에 달한다. 고 박사는 "중국은 한국처럼 저풍속이면서 태풍 영향을 받는 지역 내 풍력터빈 설치 경험이 많다"며 "서해와 같이 해저 점토층이 두꺼운 해저 지반 조건에서 설치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은 한국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이만섭 효성중공업 사장, 양원(Yang Jun) 상해전기풍력 해외영업 본부장, 요하네스 부스만(Dr. Johannes Bussmann) 티유브이 슈드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국내외 54개 기관의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만섭 효성중공업 사장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미래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상품성 개선... 1회 충전으로 475km 주행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의 럭셔리 대형 전동화 세단이 독자적인 상품성과 함께 돌아왔다.

제네시스는 5일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이하 G80 전동화 모델)'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G80 전동화 모델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 '역동적인 우아함' 아래 정교한 디테일을 추가해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또 부분변경이지만 차체를 플래그십 수준으로 확대해 보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췄다.

G80 전동화 모델은 기존 대비 용량이 7.3kWh 증대된 94.5kWh 고전압 배터리 탑재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475km로 개선됐다.

주행 성능은 ▲능동형 후륜 조향 ▲쇼퍼 모드 ▲신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등을 새롭게 적용해 승차감 및 조종 안전성과 주행 감성을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27인치 통합형 디스플레이 ▲동승석 메모리 시트 ▲뒷좌석 VIP 시트 등 차량 탑승객 모두를 위한 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위)외관 (아래)실내 /제네시스

재로운 고급 사양을 적용해 플래그십에 걸맞은 상품성을 확보했다.

제네시스는 신차 수준의 상품성 강화에도 G80 전동화 모델의 판매 가격의 인상폭을 최소화해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했다. G80 전동화 모델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8919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OTT 할인에 통신비 절감까지?”

이통3사, 결합상품 경쟁 본격화

알뜰폰 확산에 이탈 가입자 확보
SKT, 'T 우주' 월 구독료 10% ↓
KT, 3~6만원대 '요고 시즌2' 선배
LGU+, 유튜브·넷플릭스 1만원대

이통3사(SK·KT·LGU+)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할인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들이 저렴한 알뜰폰(MVNO)으로 이동하는 등 이통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자 OTT 혜택을 포함한 요금제를 내세워 고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올초부터 OTT 요금인상이 이어지자 이용자 부담을 낮춰 고객을 잡아두겠다는 전략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6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0만 6588명(약 16%) 증가한 929만 6636명을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14.4%에서 16.5%로 2.1%p 늘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이통 3사 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이통 3사의 가입자 수는 4692만 8134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0만 4477명 줄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OTT 결합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SKT 지난 6월부터 구독 플랫폼 'T 우주'에 넷플릭스·웨이브를 한꺼번에 구독해 월 구독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를 출시



LG유플러스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2종을 월 1만원대로 제공하는 '더블 스트리밍 연간권'을 출시했다. /LGU+

했다. 또 자사 5G 요금제에 따라 최대 1만 3500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연계 상품을 통해 좀 더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OTT 소비자는 여러 OTT를 함께 구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KT는 최근 OTT 구독 요금제 '요고 시즌2'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3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총 13개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월 5만 5000원까지의 11종 요금제는 티빙의 광고형 스탠다드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더 높은 요금제를 이용하면 OTT의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월 6만 1000원을 가입하면 티빙 '베이직'·'디즈니플러스 스탠다드'·'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서비스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월 6만 9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시 이 중 2가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을 택할 시 5000원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LG유플러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2종을 월 1만원대로 제공하는 '더블 스트리밍 연간권'을 출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 4900원)과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월 5500원)를 결합해 1년 약정으로 구독하면 둘을 따로 구독했을 때보다 4500원 저렴한 월 기준 1만 5900원에 제공한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엔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유독'의 구독 상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 멤버십 VIP 이상 등급 고객에게는 4000원 할인을 더 추가해 월 1만 19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이 있다.

LG유플러스 안병경 구독사업담당은 "콘텐츠를 즐기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장 인기가 많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합해 할인을 제공하는 구독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유독을 통해 차별화된 구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KT, AI로 정신건강 관리 힘쓴다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 참여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정신건강을 케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 KT는 헬스케어 사업을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역량 기반의 플랫폼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초거대 AI(인공지능)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KT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셀렉트스타 등 6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AI 엔지니어를 비롯해 뇌인지과학, 행동연구, 정신의학 등 각 분야의 의료 전문가와 함께 일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예방·관리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KT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4년 동안 ▲실증 기반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개발·검증 ▲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대국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증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서 KT와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센터가 협력해 기능을 고도화한 AI 정신건강 플랫폼이 활용된다. 양 기관은 지난 1월부터 과기부 과제인 '비대면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에 공동 참여해 멀티모달(Multi Modal) 데이터와 연구 노하우를 확보해 왔다.

KT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리얼 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 실사용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활동 콘텐츠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T 전략사업본부 유용규 전략사업기획본부장(상무)은 "KT는 이번 과기부·NIPA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CT와 플랫폼 전문성을 강화해 헬스케어 사업영역을 넓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방통위 “아이폰16 싸다고 속지마세요”

‘성지점’ 사기 광고 주의보

‘아이폰 16’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달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용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이폰16 프로 라인업으로 추정되는 시제품들의 모습. (왼쪽부터) 화이트·블랙·내추럴·데저트 티타늄 색상. /뉴시스

부했다.

김대규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카카오 노사 ‘협상 결렬’... 단체행동 예고

노조, 경기지방노동위 조정신청
“회사 불성실한 태도에 논의 불가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쇄신할 것”

카카오의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쇄신 동력 부족이 이어지면서 카카오 노조는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이용자 이탈과 IT 업계 최대 이슈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역량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마주한 현재, 기업 내부 결속력까지 약해지면서 카카오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동조합)는 지난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결렬 선언문을 게시한 바 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8월 비윤리적 경영진 고문계약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처스

인수와 관련한 경영진의 배임행령에 대해 제보를 접수했다.

노조 서승욱 지회장은 "작년 10월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회사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켰다"며 "이제 더 이상 회사와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결렬을 선언했다"며 향후 단체행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쇄신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교섭 결렬에 유감을 표하며 노조 측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크루유니언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왔으나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일부 안건으로 인해 결렬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와 노조간 협상 결렬은 카카오 본사 차원에서 처음, 노조로서는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시도 후 2번째다.

카카오의 기업 내 구성원과 경영진 간 갈등은 해를 넘기며 깊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전달하며 ▲기형적인 의사결정체계 ▲기준없는 평가제도 ▲배임·행령 ▲인사검증 실패 ▲무분별한 스톱업선 ▲부실한 조직 관리 등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인사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카카오노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와 배임, 행령 사건에 연루된 임원들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 즉각적인 회사의 대처를 요구했다. 노조는 고문계약 해지와 해임을 공식 요구했으나 9월 5일 현재까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공동대표는 사임 이후 고문 계약 상태이며,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본부장도 여전히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카카오노조는 준법과신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는 사측의 안일함과 연이어 터지는 경영진의 도덕적 문제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추석 맞아 1260억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SKT 서비스용역 등 파트너사 대상

SK텔레콤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약 126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 대상은 네트워크 공사 및 유지보수, 서비스용역 등을 담당하는 300여 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전국 250여 개 대리점 등이며 SKT와 SK브로드밴드가 함께 진행한다. SKT는 명절을 앞둔 파트너사들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파트너사들의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SKT는 중소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매년 명절마다 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설날과 추석을 합쳐 총 254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된다.

한편, 2003년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한 SKT는 '동반성장펀드', '대금지급바로'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중소 파트너사들의 안정적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오고 있다. /구남영 기자

NARA CE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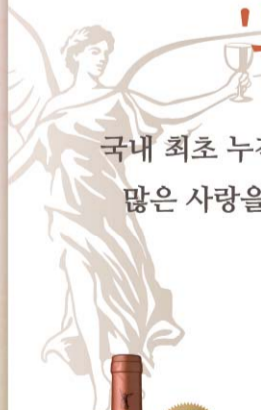
秋夕

추석에도 나라셀라와 함께 준비하세요!

나라셀라
추석
선물세트



국민 천사 와인
'몬테스'



국내 최초 누적판매 1600만병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천사 와인 '몬테스'



몬테스 알파 엠



몬테스 플리



몬테스 퍼플 앤젤

몬테스의 품질과
아르헨티나의 독창성
'카이켄'



칠레 와인의 마에스트로이자 스타 와인메이커 '아우렐리오 몬테스'가 안데스 산맥의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와인 '카이켄'



카이켄 울트라 카베네 소비뇽



카이켄 울트라 말벡



카이켄 울트라 사도네이

❁ 판매처 ❁

WINE PICK S

- 송파점 | 02-401-3766
- 동탄점 | 031-898-6635
- 을지로점 | 02-6031-0020
- 분당정자점 | 031-712-8585
- 여의도점 | 02-3775-1875
- 이케아광명점 | 02-899-4777
- 성수점 | 02-3409-5633
- 광주봉선점 | 062-674-0985
- 청담점 | 02-514-5500
- 센텀점 | 051-747-4272
- 압구정현대점 | 02-547-8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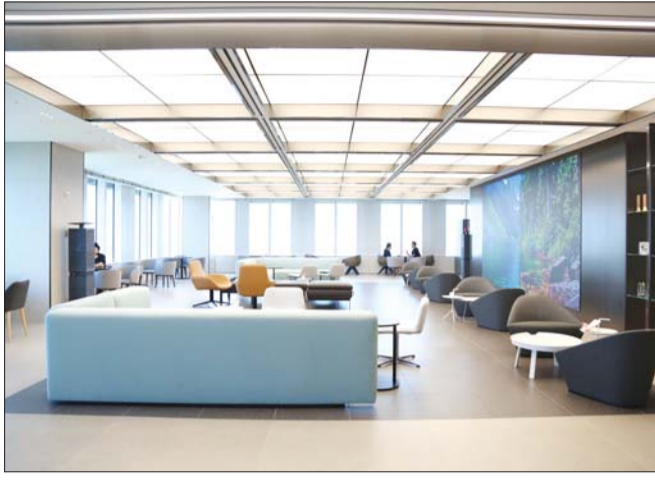
Naracellar Reserve

나라셀라리저브 | 02-548-3720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신한·키움證, ‘장애인 일자리 지원 카페’ 등 사회공헌 활발

신한투자증권 ‘카페스윗 여의도점’ 장애 차별 없이 근무자로서 존중 여의도 역사 내 ‘SOL 스테이션’ 조성 키움증권, 사내카페 키오스크 ‘주목’ 임직원 선택분야에 1000원씩 기부 리우저블 컵으로 종이컵 수요 줄여



TP타워 41층에 최근 오픈한 신한투자증권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카페 ‘카페스윗 여의도점’ 모습. /신한투자증권



TP타워 4층에 위치한 키움증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내 카페. 6개 분야에 기부할 수 있도록 ‘키움과 나눔’ 키오스크가 마련돼 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TP타워’ 내에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 운영하는 두 곳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카페가 관심을 끌고 있다. TP타워와 직접 연결된 여의도역 역사 안에는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SOL 스테이션’이라는 쉼터도 조성되면서, TP타워에는 증권사들의 사회공헌 움직임이 묻어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P타워에 새동지 마련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각각 41층과 4층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TP타워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이 교차하는 초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신사옥에 오픈한 ‘카페스윗 여의도점’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카페로 9호점째다. ‘카페스윗’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위트는 ‘신한과 함께’라는 의미

를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증권가는 저층에 영업부를 두고 있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신사옥 이전과 함께 영업부를 제일 고층인 41층으로 옮겼다. 고객들이 신한투자증권에 방문했을 때, 고층에서 즐길 수 있는 여의도 전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사옥 이전을 기념한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고객들이 찾으시는 영업부서와 카페스윗이 모두 위치한 아주 의미 있는 41층”이라며 “TP타워의 ‘TP’를 의미하는 ‘Teacher’s Pension (사학연금)’이 신한투자증권에게 있어서는 ‘Turning Point(전환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페스윗 여의도점’은 여의도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큼직한 창문들이 벽을 대신하고 있다.

카페스윗 여의도점을 관리하고 있는 엄윤정 점장은 “현재 청각 장애인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곧 농인분도 함께 일하게 될 것 같다. 구성원과 고객 모두 힘든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만큼은 차별 없이 근무자로 존중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서 손발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픽업대에서 고객을 위한 안내 업무를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자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역 역사 내에는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SOL 스테이션’이라는 문화공간이 조성돼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쉴 수 있도록 앉을 자리를 구성함과 동시에 신한투자증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날 ‘SOL 스테이션’에서 쉬고 있던 김모(여·50대)씨는 “의자 배치나 시원한 블루 컬러 등이 휴식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적절해 보인다”며 “사실 신한투자증권역이 됐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쉴 곳이 생겨서 앉아 있다보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역이라는 역명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여의도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

한투자증권이 편의성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여의도역은 신한투자증권역으로 역명을 병기하고 있다.

더불어 키움증권도 TP타워 4층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내 카페를 운영 중이다. 주목되는 점은 사내 카페에 놓여진 ‘키움과 나눔’ 키오스크이다. 키오스크 화면에는 ▲지역사회 ▲모자보호소 ▲화재피해 ▲장애인이동권 ▲동물구조 ▲언어치료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임직원들이 자신의 사원 카드를 인식시키면 선택한 분야에 해당 1000원씩 기부된다. 3일 오전 10시 기준 누적 금액은 약 104만원으로, 사내 카페의 오픈 시기를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적립액으로 보여진다. 지난 7월 15일 사내 카페가 오픈한 이후로도 약 일주일 뒤인 23일에 들어서 기부 키오스크가 생겼다.

더불어 키움증권은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리우저블 컵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개인 리우저블 컵을 사용하며, 이외에 카페를 이용객에게는 사내카페에서 관리하는 리우저블 컵이 제공된다. 카페를 이용하고 있던 키움증권의 한 임직원은 “리우저블 컵으로 바꾼 이후 종이컵 수요가 확실히 줄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한 기자 godhe@metroseoul.co.kr

되살아난 ‘R의 공포’

안정적인 파킹형 ETF·바이오株 ‘눈길’

美 제조업 지표·경기 둔화 등 부정적인 지표에 글로벌 증시 급락 엔비디아 폭락에 ‘AI 버블론’ 확산

지난달 5일 ‘검은 월요일’ 이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발(發) ‘R(Recession, 침체)의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의 자금은 큰 하락세를 피한 바이오주와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4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9% 오른 4만974.97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6% 하락한 5520.07에, 나스닥지수는 0.30% 떨어진 1만 7084.30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영향이 컸다. 아울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내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된 지역이 총 12개 관할 지역 중 9개 지역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보다 경기 둔화 지역이 4개 더 증가한 규모다. 안소는 KB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과 제조업 활동이 약해졌다” 평가했다.

각종 부정적인 지표 탓에 이들 연속 하락세를 보인 뉴욕 증시는 글로벌 증시를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9.5% 폭락한 데 이어 1.66% 추가로 떨어졌다. 엔비디아 한주가 106.21달러에 거래되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도 2조6050억달러로 줄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AI 버블론’이 힘을 얻자, 투심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로 옮겨 가는 동시에 차기 황제주로 바이오주를 꼽았다.

‘파킹형 ETF’는 CD·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KOFR) 등 초단기 채권의 금리를 일할 계산해 복리로 반영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최근 5일 동안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를 2960억원가량 거래했다. 이는 코스콤 ETF체크에서 거래된 ETF 중 3위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바이오주의 경우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된 ‘KRX 300 헬스케어’ 부문이 6.07% 상승했다. 반대로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KRX 반도체’는 같은 기간 13.61% 급락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 들어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2.7%, SK바이오팜은 45.0%, 유한양행은 73.1%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업무 공유·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4일 ‘2024년 제1회 지속가능성위원회(구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3월에 발족한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가 ‘지속가능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현황 및 계획과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신한투자증권 “10~30대, ETF 투자 선호”

최근 5개년 ETF 분석 결과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주식을 투자하는 고객들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패턴을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주 연령층은 10~30대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데이터마케팅부의 최근 5개년 ETF 분석 결과(2020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에 따르면 ETF 보유 고객수 비중은 30대가 27.5%로 가장 높게 형성돼 있으며, 주 연령층은 10~30대로 집계됐다. 자산 규모로는 자산 성숙기에 해당하는 40~50대가 전체 ETF 투자 자산의 52.3%를 차지한다.

주식 자산 대비 ETF 보유 비중은 10~30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투자 금액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14.2%, 20대는 15.6%, 30대는 11.6%, 40대는 9.1%, 50대는 5.9%, 60대 이상은 4.1%로 10~30대 젊은 연령층 고객들이 효율적인 투자 수단으로 ETF를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30대 젊은 연령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편하고 효율적인 투자 수단으로 ETF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10~30대 투자자들의 ETF 투자 비중이 매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10~30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P500과 나스닥100지수 추종 ETF였다. /신한 기자

LS증권, 美 유리버스와 STO 사업 ‘맞손’

토큰증권 플랫폼 등 협력 전망

LS증권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IT) 기업인 유리버스와 토큰증권(STO)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LS증권 본사에서 맺은 협약을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재무적투자(FI) 투자, 차세대 금융서비스 사업 등에서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유리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IT 기업이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기반 기술을 보유 중이다.

앞서 LS증권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했다. 이후,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등 토큰증권 기반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윤지호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전무는 “유리버스 팀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술력을 접목해, 혁신적인 토큰증권 기반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스마트공장 추진 中企, 삼성전자로부터 혁신 노하우 전수

중기중앙회·중기부·삼성전자

중소기업 CEO 광주사업장 초청
냉장고·모터 등 제품라인 견학
중기 제조·ESG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달려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스마트공장 선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300여 명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초청해 삼성의 스마트공장 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제조현장 투어와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발표,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가이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민 국민의



5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방문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우수기업 사례발표에서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계의 품질 향상을 주도하고 있는 '에바'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실시간 생산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불량

률과 출하 리드타임을 감소시킨 '한서정공' ▲60년 전통기와 제조기업으로 스마트 제조공정을 구현해내며 매출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산청토기' 등 총 3개 기업의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이들 3개 업체는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후 중소기업인들은 삼성전자 광

주사업장의 제조현장을 투어하며 냉장고·모터·금형·인쇄회로기판조립(PBA)·컴프레서 등 제품라인을 살펴봤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접목 시스템 운영, 자동화 설비, 물류 최적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노하우 등 현장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함께 나누는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그동안의 지원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 및 ESG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경준 회장은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부, 중기중앙회, 삼성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와 함께 지자체 협업사업, 식품업 지

원사업 등 사업모델을 다각화하여 스마트공장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2188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190여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92.3%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95.2%는 상생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지속·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삼성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산업안전 등 산업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삼성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산업·에너지 R&D 예산 5.6조 '역대최대'

산업부, 편성액 전년비 9.6% 증액 6대 첨단산업에 1조2600억 배정

내년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이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년 연구개발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가 편성한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5조 5701억원으로 올해 5조 802억원 대비 9.6% 증액됐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 지원(20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 초격

차 기술 확보에 각각 1조 2600억원(1600억원 ↑), 1조 8200억원(840억원 ↑)을 배정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6600억원, 사람을 키우는 연구개발에도 2600억원을 투자한다.

작년 구조개혁으로 축소됐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연구개발은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지형을 고려해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 투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화 지원은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개발 기획-수행-평가 전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획단계에선 기존 답다운 방식이 아니라, 대상품목과 기술목표만 제시하고 연구수요자들이 스스로 상세기술을 정하는 품목지정 방식을 적용했다. 또 현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제 공고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수행단계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동연구기관 구성과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진행의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9개 과제에 시범 도입했다. 평가단계에서도 연구과제의 도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산업부가 직접 수행하는 무기명 자문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형 사업 신규과제의 30% 이상인 474개 과제가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앞줄 왼쪽 2번째)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5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中企·벤처 정부지원 더욱 절실한 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연체율 상승, 휴·폐업 증가 등 경영여건이 크게 어려워진 가운데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올해 처음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달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옴부즈만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포럼에는 중소벤처기업·여성기업·청년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8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참가했다. /김승호 기자

쌍용C&E, 포스코와 탄소배출 저감 맞손

탄소 포집·활용기술 개발 업무협약

쌍용C&E가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철강, 건설업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에 나선다.

쌍용C&E는 지난 4일 부산 벡스코에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주요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과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쌍용C&E와 포스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현장에서 기초 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쌍용C&E 관계자는 "최근 3년여의 연구를 거쳐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석회석시멘트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공정 중 탄소 포집이 가능한 프로세스의 검토 및 검증, 탄소 포집물을 활용한 시멘트 자원화 기술에 대한 가시적 성과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협-대한의학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공모

벤처기업협회가 대한의학회와 함께 '제2의 이민화'를 찾기 위해 제9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5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민화 의료창업상'은 우리나라 의학 및 의료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선각자이고 이민화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됐고 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우리나라의 의학 및 의료산업 발전에 공헌한 창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해당된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 1인씩 선정하며 시상식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자에게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승호 기자

인도 소프트웨어 인재 103명 韓 벤처 입사

중기부, 채용 연계사업 중간 점검

인도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103명이 한국 벤처기업 30개사에 입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W 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도의 우수한 SW 개발자 200명 채용 연계를 목표로 사업을 론칭하고 중간 실적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 SW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3회 개최해 약 1000여명이 참여했다.

사업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는 인도공과대학 동문재단(Pan-IT Alumni Foundation)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 매달 구인 기업모집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324개사가 신청해 이 가운데 91개사가 395건의 면접을 통해 최종 30개사가 103명의 인도 개발자를 채용했다. /김승호 기자

송미령 “농촌, 국민의 쉼터와 일자리 공간으로 탈바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2024 농업박람회’ aT센터서 개막 8일까지 진행

농업과 삶 등 4가지 테마관 조성
농촌특화지구관·콩페스타 등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래 농촌이란 국민이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촌특화지구관 등을 둘러보고,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요청·당부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를 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농촌특화지구관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서울 양재 에이티(aT) 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통해 농촌공간계획으로 변화될 새로운 농촌 공간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또 이른바 ‘합한 농촌’ 사진 경연대회가 부대행사로 기획됐다. 박람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송 장관은 “올해는 특별히 국민 모두

에게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새로운 농촌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박람회를 둘러보면서 농업·농촌을 즐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의 농산물관을 둘러본 뒤 전략 작물인 우리 콩의 중요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창업관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발전에 대해 청년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막식에는 관광객을 비롯해 농업인·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 아래 ▲농업과 삶 ▲농업의 도전과 미래 ▲색깔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4가지 테마관을 조성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흘간의 박람회에선 ‘농촌특화지구관’이 핵심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7대 농촌특화지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올해의 농산물관’도 처음 선보인다. 매년 하나의 대표 농산물을 선정해 해당 농산물의 역사·요리법·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올해는 국산콩을 활용한 K-콩 페스타관으로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농촌에서의 삶과 추억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관객이 직접 현장에서 투표해 순위를 정하는 ‘합촌사 진공모’가 열린다. 행사장 3층 제2 전시장 합촌사랑대회 투표존에 마련돼 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미래 농촌을 함께 그려보는 ‘아그리테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뉴에이지웨이브’ 학술대회도 열린다. ‘변화와 위기 속 농촌 활성화 전략’, ‘청년세대 일자리육성 세션: 잡아라 갓생긱잡’이라는 2개의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전시장 앞마당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터도 열린다. 한우, 한돈, 오리, 과일, 양곡, 홍삼 등의 농축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임금체불 근절·노동약자 보호 최우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체불임금 청산·악질 사업주 처벌 전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 지원 강화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면서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 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임금체불 및 약자보호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 청산 총력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회의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임금체불 등 노동약

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은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 돼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kdh@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제한 품목 확대

산업부,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 품목은 비전략물자 중 균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돼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구부품, 센서 등 균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분 수출(9월8일까지 수출계약 체결된 경우)이나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 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뉴시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에서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손된 군사 대학 건물에서 작업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군이 폴타바를 공습해 최소 4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뉴시스

아울러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안도 9일 시행된다.

개정 지침은 반복·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한게 골자다. 또 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금액이 1000달러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독려

환경부,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환경부는 오는 6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이제 그만,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이다.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

회를 앞두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등 우수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펼쳐진다. 먼저,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입구와 녹음광장에서는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이곳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한 중·소형급 한국형 청소차를 전시한다.

아울러 오는 8일까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에서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캠페인)이 진행된다. /김대환 기자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아요”

농식품부·해수부, 9~15일까지 진행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가 열린다. 최대 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축산물 120개소와 수산물 114개소 등 총 234개 시장(중복 포함)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명절선물세트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당신 곁에. 마음을 보내주세요.



02-2273-4664

축산물 도소매 직거래 쇼핑몰

www.meatstation.co.kr

‘서울시교육감 선거’ 단일화에 달려

총 15명 후보자 출마 공식화
진보 진영, 후보 8명 단일화 합의
보수계열 “지난 선거, 과반 득표에도
단일화 안 해 조희연 후보에 패배”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진보·보수성향 인사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 여부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진보 진영은 일찍이 후보 단일화에 뜻을 모았다. 단일화 실패에 3선 모두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실패했던 보수 진영도 이번에는 단일화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참여 후보(강신만, 박노현, 김경범, 김용서, 김재홍, 안승문, 정근식, 홍제남)들이 5일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 10명, 보수 진영에서 5명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진보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계 진보 인사단이 만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8명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며 6일까지 경선 룰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선 일정은 후보자들이 합의하기로 했다.

추진위에 등록된 후보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위원장, 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전 서울 오류중 교장)이다. 진보계인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도 도전장을 냈지만,

이번 추진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계열 후보들도 잇달아 출사표를 내고 있다. 이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이 출마를 본격화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 역시 각 진영에서의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4, 2018,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자리를 내줬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화

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년 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은 과반 득표를 하고도 단일화를 안 하는 바람에 조희연 후보에게 패했다”라며 “후보 단일화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공개적인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단일화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서울시교육감을 진보진영에 빼길 수 없다”라며 “(단일화 과정에서)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약속을 깨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궐 선거일은 내달 16일로, 본후보 등록은 26·27일 사이를 간 이뤄진다.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4개 분야 ‘추석 종합대책’ 가동

오는 13일~19일 시행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2024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올 추석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교통대책 ▲민생안전 ▲생활환경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응력 보장을 위해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49개소)과 응급실 운영병원(20개소) 총 69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1800여개로 확대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이달 14~18일 경증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운영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지하철과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마지막 열

차가 다음날 새벽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하루 총 121회 증회 운행한다.

또 서울역 포함 주요 기차역(5개소), 고속터미널 등 터미널(3개소)에서 종점 방향 시내버스 도착이 익일 오전 2시에 통과하게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 전 저소득 가정에 1억90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 배출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사전에 안내한다. 추석 전 발생한 쓰레기 수거·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휴 이후에는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마무리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관련 생활 정보는 ‘2024 추석 연휴 종합 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대전시가 4일 서울 양재 N타워에서 열린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재산 진흥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 지식재산 시행 추진실적 ‘최우수’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선정

대전시가 지식재산 진흥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시가 유일하다.

지난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지난해 전국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한 결과,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 일류도시 대전’ 사업을 추진한 대전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대전시는 지난 7월 22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 소관 중앙부처인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10대 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는 지식재산이 지방정부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6대 전략사업 등의 육성을 위해 산학연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및 활용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2026년 명동서 남산 정상까지 5분 걸린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착공식
25대로 832m 구간 동시 운행
시간당 최대 1600명 방문객 수용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5일 오전 중구 예장공원에서 개최된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오는 2026년에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이내에 올라갈 수 있다. 곤돌라 캐빈 25대가 832m 구간을 동시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남산 방문객을 수송하게 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곤돌라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2일 하부 승강장 예정지에 있던 이회영기념관 철거에 들어갔다.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올 11월 본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준공한 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 남산 곤돌라를 정식 운행한다는 목표다.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 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상부 승강장) 832m 구간을 오간다. 시는 곤돌라 조성 후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주변 접근성을 개선하고, 전망 공간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 곤돌라 운행이 시작되면 남산의 생명력, 활력, 매력, 경쟁력이 모두 빠른 시일 내 엄청난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며 “곤돌라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서울디딤돌소득’으로 K-복지모델 제시

서울시, ‘안심소득’ 새 명칭 공모
정교한 개편 위해 정합성 연구 진행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이름 공모를 거쳐 최종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바꾸고, 전국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서울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공모 결과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 서울디딤돌소득이 전체의 약 34%에 해당하는 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새 이름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돼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현재 시는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2030 청년성도 증가세

8개월 정규과정 수료자 年 10만여명

신천지예수교회의 20~30대 청년성도 증가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약 8개월간의 정규과정을 수료하는 교인의 수가 매해 10만여 명이 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수료생을 배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신천지예수교회의 이러한 성장의 비결은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설교와 교육, 구역장 등 사명자들의 교인들을 향한 헌신적인 신앙관리가 주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이만희 총회장에게서 비롯됐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총회장은 과거부터 전국 각 교회를 직접 찾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교역자 등 사명자들에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주문해왔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에 입각한 탁월한 계시 말씀과 이만희 총회장의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에 사명자들도 본받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더 크고 잘 준비된 수료식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

길 가다 작품보고, 사진찍고... 동네 곳곳 전시장된 장충동

Q 르포 | 2024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장충

“지나다니면서 부담없이 전시도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지역 축제가 많아졌음 좋겠어요.” 예술과 지역이 만나 상생을 이뤘다. ‘장충’이라는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이 장충 태극당, 커피빈 등 친숙한 지역 장소 곳곳에 전시돼 있었다. 전시 장소 한쪽에는 지역 상공인들이 장충동 촉발을 활용해 만든 반미 음식 점이 팝업 형태로 마련됐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전시에 들러 사진을 찍기도 마련된 장소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장충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김 모 씨는 이번 파라다이스 아트페어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5일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서울 장충동에서 ‘2024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장충’을 열고 지역 협력형 예술 전시를 소개했다. 행사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지난 3월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국내 아티스트의 창작물 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거리공연, 아티스트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지역형 행사는 장충 태극당과 커피빈 등이 있는 P1부터 P4까지의 장소와 함께 남소영 잔디광장, 장충단 공원, 파라다이스 빌딩 1층 등 외부 장소를 포함한다.

지역 축제답게 전시된 작품들은 ‘장충’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맞닿아 있었다. 먼저 커피빈 공간 옆 장소 전시회에

는 장충을 느끼고 이를 시각화해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마련돼 있었다. 가장 먼저 손여울 작가의 ‘날씨와 함께하는 생활(Weather Woven Living)’ 작품이다. 작가는 직접 날씨 데이터 관측 기계를 설치해 장충의 날씨와 환경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데이터 아트를 선보였다.

장충의 소음을 표현한 작품도 있다. ‘배타적 이집들, 바람의 속삭임’은 전형산 작가가 청각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인식 및 감각을 주파수를 통해 시각화해 표현했다.

오감이 아닌 지역 문화를 느끼고 표현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역사가 깊은 장충 태극당 2층에는 1970년대를 보냈던 한 문학소녀의 비밀편지가 전시됐



증강현실(AR) 기반 문화 예술 작품 ‘슬릿’.

파라다이스문화재단 국내 아티스트들 창작물 등 중심 지역과 협력하는 예술전시 진행 커피빈 옆에 장충 시각화 표현 손여울·전형산 작가 작품 선보

다. ‘1974 장충동: 문학소녀의 비밀편지’는 오주영 작가의 조모가 살아 생전 쓰셨던 문학 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급격한 시대적, 경제적 변화와 신여성의 등장으로 문화중심지로 급부상한 당시 장충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장충 일대에 술가들의 고뇌를 영상으로 표현한 ‘스



태극당 2층에 전시된 ‘1974 장충동: 문학소녀의 비밀편지’ 관련 포스터들. /안재선 기자

위트홈.에프엠(SWEETHOME.FM)’ 작품도 전시됐다.

지역은 그 자체로 기술과 만나 하나의 예술이 되기도 했다. 기어이 스튜디오가 전시한 작품 ‘슬릿’은 증강현실(AR)을 바탕으로 한다. ‘슬릿’은 기어이 스튜디오가 창작한 종족이다. 우연히 인간 세상에 와 고양이에게 쫓기다 인간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인간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투어형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QR코드를 찍고 지도를 가지고 외부 장충공원으로 나가면 내 위치와 함께 지정된 장소가 표시된다. 주변 장소를 돌아다니며 증강현실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다.

기어이 스튜디오 관계자는 “대표님께서 처음 작품을 제작할 때, 장충동 공원 일대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좋은 공간을 놓치는 걸 아쉬워하셨다”며 “여기는 좋은 유적지, 폭포수 등 좋은 장소들이 많다. 이 ‘슬릿’을 통해 주변 지역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지역과 협력한 이번 행사를 통한 소회를 전했다. “장충 일대로 아트 문화가 스며들었다면 좋겠다”며 “이렇게 지역 페스티벌을 하고 있으면 주변 상인들이 와서 파배기를 주고 가시기도 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기억력 감퇴 ‘메모레인’으로 예방하세요”

동국제약, 기억력 관리 캠페인 집중력·주의력 저하 효과적 개선



동국제약이 고령층 기억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 솔루션 ‘메모레인(사진)’을 제공한다.

실제로,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기억력 감퇴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동국제약이 지난해 시장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25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력 및 인

지력 감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기억력 감퇴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의 약 14%로 나타났다. 이어, 40~60대 24%, 50~60대 3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률도 올라갔다.

이에 동국제약은 ‘메모레인’으로 기억력 감퇴 현상을 완화하라고 조언한다. 동국제약은 지난 1월 기억력·집중력 개선제 ‘메모레인캡슐’을 출시하고,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기억력 관리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메모레인캡슐은 인삼 40%에탄올건조엑스 100mg과 은행엽건조엑스 60mg의 생약복합성분으로 집중력 및 주의력 저하, 기억력 감퇴, 말초동맥 순환장애에 의한 현기증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 준다.

메모레인캡슐은 처방전 없이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1캡슐씩 1일 2회 복용하면 된다.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PTP포장이며, 무색수 캡슐을 적용하여 민감한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복용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구입 가능 약국 확인은 동국제약 소비자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호텔앤리조트,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

‘롯데호텔앤리조트 AI 챌린지’ 개최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고객 참여형 ‘2024 글로벌 롯데호텔앤리조트 AI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진행되는 AI 챌린지는 ‘세계 속 롯데호텔, 당신의 상상으로 빚어내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주제로 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우선 롯데호텔앤리조트

의 시그니얼, 롯데호텔, L7, 롯데시티호텔, 롯데리조트 중 하나를 선택, 해당 브랜드가 진출하지 않은 세계 주요 도시에 호텔이나 리조트가 들어선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한 뒤 AI 도구를 활용해 영상 또는 이미지를 제작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롯데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모 양식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창작물과 함께 메일로 보내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달 6일까지며, 내달 31일 최종 선정작을 발표한다. 선정작은 롯데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매출 100억 돌파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 국산화 주도

대웅제약 엔블로군은 출시 후 월평균 두자리 성장하며 ‘당뇨병 치료제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와 엔블로멧이 누계 원외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엔블로군은 발매 후 월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처방 실적을 확대해 왔다. 출시 첫 달 처방량 27만정을 돌파하며 두각을 나타낸 엔블로군은 올해 7월 누적 원외처방액 102억원을 달성한 것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러한 엔블로의 확대 속도는 기존 경쟁 SGLT-2 억제제 제네릭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인상적인 성과다.

지난해 4월 ‘포시가(성분명 다과글리플로진)’의 특허 만료로 190여개의 제네릭 품목이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외국계 당뇨병 치료제가 연이어 국내 시장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엔블로는 임상 연구를 통해 포시가 대비 우월한 효과와 안전성 입증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온 ‘온앤더럭셔리’ 매출 2배 ↑

롯데온의 ‘온앤더럭셔리’가 9월 행사 첫날부터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온앤더럭셔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오픈 2주년을 기념해 ‘럭셔리 페스타’ 행사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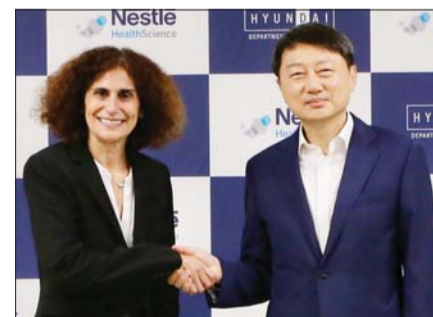
지난 1일 행사 첫날부터 일 최고 실적을 경신한 온앤더럭셔리는 3일까지 사흘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가까이 신장하며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역대급 실적을 이끌어낸 데는 메종마르제엘라 버킷백과 폼데가르송 맨투맨, 쉐린느 아바 솔더백 등 인기 아이템 완판이 주효했다.

헬스케어 사업 확장 속력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 대치동 그룹 본사 사옥에서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장호진 사장이 방한한 애나 몰네슬레헬스사이언스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상호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CEO는 지난해 양사 간 업무 협약 체결 이후의 협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네슬레헬스사이언스 건기식 브랜드의 국내 유통 확대 등 사업 확대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매장 확대와 신제품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식품·유통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 대치동 현대백화점그룹 본사 사옥에서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오른쪽)과 애나 몰네슬레헬스사이언스 최고경영자가 회동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네슬레헬스사이언스와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그룹의 신수종 사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판매·유통채널 확대에 속도를 낸다. /최빛나 기자

CJ대한통운, '더 운반' 순항... 차주 호평

빠른 정산으로 현금흐름 긍정적 영향

CJ대한통운의 미들마일 운송플랫폼 '더 운반' (theunban)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운임 익일지급 시스템이 차주(화물 기사)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CJ대한통운 '더 운반'은 작년 7월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차주에게 거래금액 전액을 익일정산해 지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더 운반'은 화주(화물 주인)로부터 거래일 기준 30여일 후 대금을 받지만 차주에게는 자체 현금으로 선지급해 '지연 정산'이 만연한 미들마일 물류 생태계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차주들은 '더 운반'의 빠른 정산이 현금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입을 모았다.

'더 운반'은 차주들이 익일정산에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화주물량 확보를 통해 화주와 차주의 규모를 동시에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 최형욱 디지털물류플랫폼 CIC장은 "익일 지급 서비스는 미들마일 물류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최근 가구업계를 포함해 대형 고객사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세 확장에 따른 주문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자동차기자협회 "이달의 차 '폴스타4'"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등 고평가

스웨덴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 4'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024년 9월의 차로 폴스타의 폴스타 4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해 이달의 차를 발표했다. 평가는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에 KG 모빌리티 액티언, 포르쉐 신허 타이칸, 폭스바겐 신형 투아레, 폴스타 폴스타 4,



9월의 자동차로 선정된 폴스타4의 모습. /한국자동차기자협회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9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폴스타 4가 36.7점(50점 만점)을 얻어 9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폴스타 4는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각각 7.7점(10점 만점)을 받았고,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부문에서 7.3점을 기록했다. /박대성 기자 iunm@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신임 원장 취임

조주현 전 중소기업부 차관(사진)이 중기부 산하 9대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중기연구원은 조신임 원장이 6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조신임 원장은 중기부 전신인 중소기업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중기정책실·창업벤처실 국장, 소상공인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들어 중기부 차관을



역임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 초빙교수를 맡았다.

조 원장은 28년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과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정책을 기획·집행·관리해온 중소기업 분야 행정 및 정책전문가로 손꼽힌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6일 (금)
음력: 8월 4일

수도권 날씨
24 ~ 3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07 | 해질 / 18:54

연천 21/29, 동두천 22/29, 가평 21/28, 파주 21/29, 서울 24/31, 양평 23/28, 인천 24/30, 수원 24/29, 용인 24/29, 평택 24/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2024년 국가고객만족도 인증식

KT&G, 담배부문 1위 차지

혁신 기술 바탕 다양한 제품 개발
일반관련 시장 점유율 60% 이상

KT&G가 지난 4일 '202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인증식'에서 담배 부문 1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NCSI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로 고객이 직접 평가를 통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만족도를 계량화한 국내 대표 고객 만족 지수로 인정받고 있다.

1988년 국내 담배시장 개방 이후 글로벌 경쟁사들을 상대로 시장 1위를 수성중인 KT&G는 현재도 일반관련 기준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T&G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 집중해왔다. 일반 관련 분야에서는 '에세(ESSE)', '레종(R



KT&G 사옥 전경

AISON)', '보렘(BOHEM)' 등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에 발맞춘 차별화 제품을 개발해왔으며, 2017년에는 독자적인 전자담배 플랫폼 '릴(lil)'을 론칭하고 '솔리드(SOLID)', '하이브리드(HYBRID)', '에이블(AIBLE)'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을 시장에 선보이며 전자담배 시장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LG생건, 여성용화장품 경쟁력 입증

LG생활건강이 한국생산성본부 '더 후' 등 차별화 경험... 단독 1위

가 발표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인증식에서 '여성용화장품'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여성용화장품 부문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여성용화장품(기초·색조)을 직접 구입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LG생활건강은 79점으로 단독 1위를 차지했다.

LG생활건강은 대표 브랜드 더 후, 슌37' 등의 리뉴얼과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 전개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 '더후 공



지난 4일 열린 202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인증식에서 LG생활건강 뷰티 사업부장 오상문 전무(오른쪽)가 1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진향 진해윤 선퀵드'는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주름 개선 기능까지 더한 2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했다.

금투협, 부산 혁신·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부산시와 '머스트 라운드' 개최

금융투자협회는 5일 부산시와 함께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 P)에서 '제19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머스트 라운드'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는 기업간거래(B2B) 전문 주류유통 플랫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수산물 물류기업, 전기 굴착기 전동화 전문기업, 뉴미디어 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콘텐츠분야 혁신 기술기업 4개사가 투자유치에 나선다. /원관희 기자 wkh@

부음

▲조정제씨 별세,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씨 부친상 = 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9호실(15호실 이실 예정), 발인 7일. 02-3410-3151

▲박만환씨 별세, 박문수(현대해상 홍보팀장)·문철씨 부친상, 한동희·황혜정씨 시부상 = 4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02-6986-4440



네이버-유한킴벌리, 탄소배출 저감 맞손

네이버는 유한킴벌리와 핸드타월 재활용을 통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네이버 1784에서 유한킴벌리 손승우 지속가능경영부문장(왼쪽), 노세관 네이버 I&S 대표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포스코, 인적자원개발 성과평가 최우수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왼쪽)과 포스코 양병호 경영지원본부장이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



GS칼텍스, '서울숲 정원학교' 사업 추진

GS칼텍스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및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서울숲 정원학교 및 시민정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 서울그린트러스트 심주영 이사,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GS칼텍스 이상훈 홍보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모비스,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개최

현대모비스는 지난 4일 경기도 의왕연구소에서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한 이번 행사는 남성 직원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 조성하기 위함이다. /현대모비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전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해볼 수 있는 '2024년 미래에셋 청소년 비전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생활에 밀접한 기술을 체험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을 함양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Towards Lux Mundi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의 혁신,
현대사회가 남긴 문명사적 공헌이다. 우리는 그 수혜자다.
그러나 그 이면엔 함께 풀어가야 할 도전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난과 질병, 정치·사회적 균열과 갈등, 전례 없이 깊어지는
기후와 생태·환경 위기, 인간 통제를 벗어날 인공지능의 위협,
핵 대전 가능성... 도래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가운데 지구적 재앙에 관한
깊은 우려가 국제사회로부터 연이어 나온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지구 행성의 모든 이들과
못 생명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상상과 의식, 지구적 실천 세계의 확장이 절실하다.
유례없는 전환의 시대, 경희는 새 희망의 활로를 찾아 나선다.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4.9.10(화) 10:00 ~ 13(금) 18:00
입학정보 : iphak.khu.ac.kr 입학상담 : 1544-2828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

경희사이버대학교

2025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4.12.1(일) ~
입학상담 : 02)959-0000 / go.khcu.ac.kr

2025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4.11.11(월) ~
입학상담 : 02)3299-8808 / grad.khcu.ac.kr

1981년 경희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제안해, 유엔은 제36차 총회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은 매년 9월 21일이다.
Lux Mundi(룩스문디)는 '세계의 빛'을 뜻한다.

벤처자금생태계와 선순환 과제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벤처자금생태계란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캐피탈(VC)의 자금모집과 투자, 투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 그리고 재투자로 이뤄지는 순환체계를 일컫는다. 벤처자금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시장과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벤처캐피탈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VC에 대한 외부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물론이고 VC의 혁신벤처기업 발굴과 이들 기업에 대한 심사능력, 그리고 투자 이후 경영자문 능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모험자본시장이 발전해야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하에 있는 창업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있는 신기술금융회사로 양분되어 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은 창업투자회사가 주도를 했다. 이후 신기술금융회사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급기야 2021년엔 신기술금융회사가 앞서고 이후부터는

서로가 경쟁하듯 앞서기 뒤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이 주도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의 투자 규모는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이다. 벤처투자자금을 보면, 2010년 중반까지만 연 2.5조~3조원대에서 2021년 17조원으로 정점을 이뤘고 2023년에도 11.9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벤처자금생태계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지난 20년간 연구현장에서 몸담은 필자로서는 우리 벤처캐피탈업계의 질적 성장이 절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벤처캐피탈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지만, 벤처자금생태계가 선순환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벤처업계의 역량 제고와 함께 모험자본시장의 육성이 다음과 같이 더욱 절실하다.

첫째, 우리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발굴 선별능력과 함께 경영자문 역량이 확대되어야 한다. 2016년부터 2023년 기간 대략 75조원 정도 벤처투자자금이 벤처기업에 투자되었는데, 이들 중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은 얼마나 될까? 투자기업 중 국내 자본시장 외 나스닥(Nasdaq) 같은 해외시장에 IPO를 한 기업은 몇 개가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적되는 하나가 VC가 그만큼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가 VC의 투자기업 경영참여는

물론 글로벌화에 대한 컨설팅의 부진이다. 정부는 자금공급과 VC업체수 늘리기 등의 외형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VC 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예를 들어 VC 경쟁화 및 전문화, 해외 LP유치, VC 투자 및 운용자료 공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되는 자본시장으로 육성 발전이 시급하다. 우리 M&A 수준은 VC의 회수비중에서 수치로 제시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M&A 부진은 VC의 선별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함께 위험자산에 대한 자본시장의 투자 회피를 의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VC의 역량 제고와 함께 위험자산에 대한 시장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40%로 묶여있는 CVC의 외부출자 비중 확대, 연기금의 벤처투자확대, 세계지원 M&A 펀드 및 세컨더리 펀드의 설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벤처자금생태계의 선순환은 우리 VC가 한 단계 더 발전함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혁신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된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이를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에 정부와 국회의 독서망양(讀書亡羊)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오늘의 운세 9월 6일 (금 8월 4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48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주어진다. 60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72년생 배우자와 사람과 만남을 주의. 84년생 서로 통하는 파트너를 만난다.

소 3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49년생 불평이 많다 보니 화병이 생긴다. 61년생 좋은 꼴을 얻으려면 먼저 밭을 키워라. 73년생 너무 기뻐도 병이 될 수 있으니 겸손하자. 85년생 문서매매는 지금보다 다음 달이 수월하다.

호랑이 38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50년생 이상적인 합은 있을 수가 어렵다. 62년생 조직에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74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86년생 나의 안식을 종교에서 과연 구할 수가 있을까.

토끼 39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두자. 5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곧 있겠다. 63년생 싫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해 생각. 7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87년생 돌아서기보다는 부디 쳐보는데.

말 40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즐거운 하루. 52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6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76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을 남기지 말고 실행. 88년생 사는 것이 구만리 같아 힘들다.

뱀 41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53년생 마음이 들뜨면 취침 전에 잠시 명상이라도 해보자. 65년생 질투 슬픔 시샘도 마음의 병이다. 77년생 오늘 미팅에는 의상을 단순하게 입고 나가면 길하다. 89년생 오늘날이 날이 아니다.

말 42년생 오월동주(吳越同舟)이니 동업자와 소통해야. 54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6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 78년생 자신의 결함을 살펴보는 것도 자세. 90년생 만남이 변화의 계기가 되는데.

양 43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55년생 가족의 평화나나의 성공을 이끄는 지팡이. 67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스럽다. 79년생 자신을 지키는 힘은 격한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91년생 행복은 나눔에서도 시작.

원숭이 44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5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해야. 68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 온다. 80년생 살아가자면 좋은 삶은 경쟁은 필수이다. 92년생 나는 잘났고 너는 문제가 많다는 현실일까.

닭 45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할 듯. 57년생 진실을 알아도 침묵할 줄도 알아야. 69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81년생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 93년생 타인을 욕하지 말라 내게 온다.

개 46년생 남의 말은 사을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5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 70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금물. 82년생 학구열이 식지 않으므로 명성을 거머쥐든. 94년생 10년 묵은 속병이 풀려진다.

돼지 47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이 귀인이다. 59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야 해결. 71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박을 행하라. 83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인식. 95년생 예의가 없으면 조롱당하기도 하니.

서민의 꿈에 '금투세금'을 매길 수 없다



기지수첩 신하운 (자본시장부)

“일본에서는 로또에 당첨돼도 세금을 안 낸대.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지.”

영화 마스터에 나오는 이병헌의 대사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일부 복권의 당첨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도 복권 판매가격 중 40%를 이미 세금으로 받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 문장이 유명하게 퍼진 이유는 그만큼 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동학개미운동' 광풍이 불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값이 하늘을 뚫었고, 빈부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져 가는 이 땅에서 주식투자는 서민들의 꿈이나 마찬가지다. 개미(소액 투자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지만 잔잔한 성공 투자, 그저 자본 증식을 위한 나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

할 씨드는 부족하고, 예금 이자로 축적해 나가는 자산에는 한계가 있다. 10년 뒤 현금흐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불안감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갔던 경제포럼에서 한 강연자에게 "적금만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주식투자를 완전한 불로소득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복권처럼 한 번의 성공으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경제 흐름과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논리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1400만 개미들이 성공 투자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

/godhe@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힐러리의 유리천장

미국대통령 선거 관련 화제를 얘기하다 보니 미국 역사상 전례 없던 여자대통령의 탄생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전술한 바처럼 필자의 예측대로라면 검푸른 얼굴의 소유자는 현재 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에 없으니 말이다. 2016년 대선에서는 미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 탄생을 볼 뻔했으나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유리천장을 깨기에는 아직 부족했다"며 아쉬워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깨지 못한 유리천장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깰 수 있다며 대선 승리를 응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드물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례는 있었지만 민주적 총의에 의해서 개인적 역량을 인정받아 올라온 것이 아닌 이미 절대 권력의 이너 써클 안에 있던 여성들이었다. 산업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성들은 혹독한 남성적 사고와 시대상에서 철저하게 남성의 소유물로서 조종받거나 지배당해왔다.

동양에서도 특히 정관의 치를 펼친 당태종의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은 이어서 황제가 된 고종의 아내 측천무후였다. 역사적으로 악녀로 그려져 있는 것은 감히 여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권력층 남성들의 용렬한 자존심이었다고 보고 싶다. 후대에서 측천무후의 재세 기간도 지워버릴 만큼 말이다. 명리학에서도 전통적으로 여자의 사주에 강한 신살은 매우 꺼렸는데 사주가 클수록 강한 신살의 작용에 힘을 더욱 받기 때문이다. 여자가 큰 사주를 지니고 있다면 분명 남편이나 자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꺼려졌던 신살을 가진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여러 분야에서 깨져가고 있지 않은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적력향상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와 알파벳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할인도서

4	1	2	6	9	8	8	7	9
9	8	9	8	2	7	2	6	1
7	6	8	9	1	2	2	9	8
9	2	6	2	9	1	8	8	7
1	2	9	8	7	8	6	2	9
8	8	7	2	6	9	9	1	2
6	7	8	9	8	9	1	2	2
2	9	2	1	8	6	7	9	8
8	9	1	7	2	2	9	8	6

4	8	6	1	7	9	8	2	9
8	1	9	2	6	2	9	7	8
9	7	2	8	9	8	1	6	2
1	2	9	7	8	2	8	9	6
9	2	8	6	9	1	2	8	7
6	8	7	8	2	9	2	9	1
8	9	8	9	2	7	6	1	2
7	6	2	2	1	8	9	8	9
2	9	1	8	6	7	9	2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0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1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한 점, 한 방울이 모여 우주를... '돈 멜초 × 김환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에서 열린 '돈 멜초 X 김환기 2021 우주' 출시를 기념하는 팝업스토어. /안상미 기자

“나는 술을 마셔야 천재가 된다. 내가 그리는 선, 하늘 끝에 더 갔을까. 내가 짙은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강산.” (김환기 작가의 일기, 1970년 1월 27일)

작가는 상상이나 했을까. 술을 사랑했던, 술을 마셔야 천재가 된다던 자신의 작품이 와인병에 입혀질 줄 말이다. 사실 듣는 사람들이 더 놀랐다. '돈 멜초 2021 X 김환기 우주' 한정판이 나온다니.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다.
#. 최고에 최고를 더하다

“8800만 달러.”
2019년 11월 23일,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우주'가 한화 132억 원에 낙찰됐다. 한국 미술품으로는 깨지 못할 것만 같았던 100억원을 단숨에 넘어선 것은 물론 사상 최고가로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우주'는 푸른빛의 추상점화로 작가의 절정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작이며, 유일한 두 폭짜리 그림이다. 점과 선, 면이 어우러지면서 보는 이마다 자신만의 우주를 떠올릴 수 있다.
와인 역시 칠레 프리미엄 와인 중에서도 켈트와인의 시조로 불리는 '돈 멜초'다. 특히 2021년은 돈 멜초로는 세기의 빈티지라고 불릴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평론가 제임스 서

클링으로부터 99점을 받았다.
최준선 롯데백화점 소믈리에에는 “돈 멜초 2021년은 좋은 산도와 잠재력으로 볼 때 어찌면 100점을 받았던 2018년보다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빈티지”라며 “와인과 아트의 협업을 추진하면서 우주 작품만이 돈 멜초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최고와 최고를 만나게 하려니 쉽지는 않았다. 2년이나 공을 들여 김환기 재단을 설득했고, 진행이 결정되고도 한정판이 나오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돈 멜초도 와이너리를 '비나 콘차이 토로'에서 '비나 돈 멜초'로 분리할 만큼 대표 와인이라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점, 한 방울이 모여 우주를
돈 멜초가 생산되는 '푸엔테 알토' 지역은 칠레에서도 프리미엄 와인 산지로 꼽히는 곳이다. 자갈 토양과 안데스의 영향으로 카베네 소비뇽을 재배하기 최

적의 곳이다.
와이너리는 각 토질의 개성에 따라 세심하게 구분해 관리한다. 같은 카베네 소비뇽이지만 크게 7구획으로 나눠 따로 양조한다. 각각의 탱크별로 맛을 본 다음 매년 최고의 균형을 이루는 카베네 소비뇽이 되도록 블렌딩 비율을 바꾼다. 작품 '우주'와 돈 멜초를 아우르는 키워드는 균형과 조화인 셈이다.
돈 멜초 2021 빈티지는 붉은 베리류와 제비꽃 향기로 시작해 민트와 삼나무향까지 가득하다. 좋은 산도와 부드러운 타닌이 길게 이어진다. 숙성 잠재력이 35~40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술 알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김환기 작가의 그림일기 속 구절이다. 좋은 작품을 바라보고 있자니 와인, 안 먹을 수도 없고. 어쩔 이리 내 맘과 같을까.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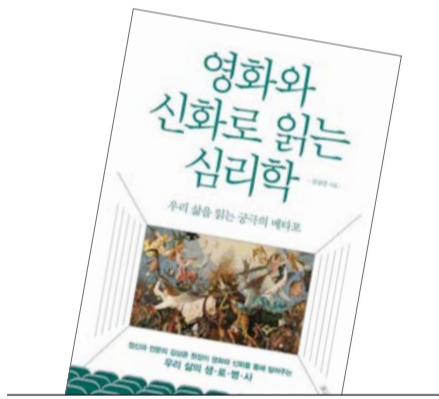
영화·신화에서 찾는 현명한 대처법

지난 2020년 12월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X)에 한 일본인이 “공부란 ‘퍼릿속’에 지식을 집어 넣는 행위”가 아닌 ‘세계의 해상도를 높이는 활동’이다”라며 “이 ‘해상도 향상감’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강하다”는 내용의 트윗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을 탐독하며, ‘공부는 세상에 대한 해상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이란 말을 새삼 실감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영화라는 캔버스에 그리스 신화를 덧대 사람의 심리를 선명하게 색칠해낸다. 저자는 19편의 영화와 관련된 신화를 들려주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방법을 알려준다.

책은 ▲인간의 가면, 페르소나를 다룬 제1장 ‘자아를 찾아서’ ▲누구나 맞닥뜨리는 삶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2장 ‘시련을 건너는 법’ ▲사랑이란 감정이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제3장 ‘사랑의 의미’ ▲욕망의 억압과 분출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제4장 ‘인간 내면의 본능과 욕망의 그림자’ ▲생로병사를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제5장 ‘삶이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여정’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영화 ‘트루먼 쇼’에 대한 저자의 통찰이었다. 방송속에 입양된 트루먼 버뱅크는 29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전생(全生)이 5000여개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세계 곳곳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는 지상 낙원과도 같은 아름다운 섬, ‘씨헤이븐’에 살고 있지만, 무릉도원을 벗어나 탐험가가 되고 싶어 한다. 주변배우의 인생을 조작해 낸 연출가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이 섬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면 벌을 준다. 요트 탐험 중 아버지를 죽게 해 물 공포증이 생기게 하고, 바다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
김상준 지음/보아스

로 나가면 인공과도를 만들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한다. 그럼에도 트루먼은 모든 난관을 뚫고 인공섬의 끝에 도달한다. 크리스토프는 그에게 “밖은 이곳처럼 안락하지 않고, 범죄와 불행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트루먼은 진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간다.

저자는 트루먼 쇼의 줄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쇼의 연출자 크리스토프는 에덴동산을 만든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트루먼에게 선악과처럼 금기시된 건 인공섬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에덴동산과 씨헤이븐은 인간에게 주입된 사회제도와 가치관이며, 교육은 세뇌를 통해 기성의 사상과 관념을 정당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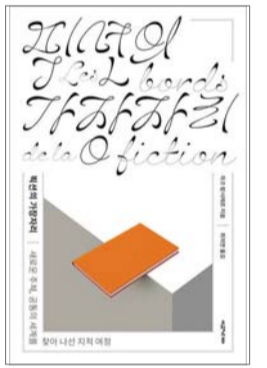
저자는 “트루먼은 씨헤이븐을 탈출하고 난 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아담과 이브는 스스로 노동을 해야 하지만 이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280쪽, 1만4000원.
/김현정 기자 hjk1@

픽션의 가장자리

책은 스탕달에서부터 발자크, 보들레르, 위고, 모파상, 프루스트, 릴케, 에드거 앨런 포, 콘래드, 제발트, 버지니아 울프, 포크너를 거쳐 주앙 기마랑이스 호자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거장들의 문학작품 분석을 통해 문학혁명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장자리를 따라나 있는지 살핀다. 저자는 근대와 현대 픽션에 등장한 새로운 주체는 누구이고 공통의 세계는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우리 시대의 사상이자크 랑시에르가 말하는 ‘픽션의 정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으로 만드는 일, 공통의 세계와 공통의 이야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책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픽션의 정치’를 통해 어떻게 주제로 등장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갔는지 보여준다.
336쪽, 2만2000원.

자크 랑시에르 지음/최의연 옮김/오월의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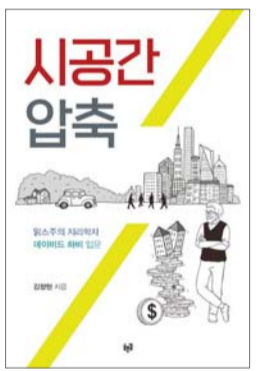


시공간 압축

‘시공간 압축’은 맑스주의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 입문서다. 저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성장·발전해나가는 하비의 지리적 사상을 풀어낸다. 데이비드 하비의 연구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자본주의, 도시화,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비는 특히 ‘시공간 압축’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의 확산과 기술 발전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놓았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했다. 책은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발간까지 하비의 생애와 그의 주요 이론을 따라가며, 그가 현대 지리학과 사회이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52쪽, 1만6000원.

김창현 지음/푸른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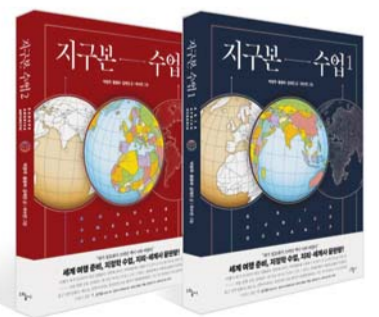


지구본 수업 1·2

태평양은 지구 표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매우 큰 바다임에도, 세계지도에서 보면 북극해나 남극해에 비해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평면 세계지도의 치명적인 단점인 면적 왜곡이 발생해 적도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평평한 세계지도는 우리의 ‘시간·공간·거리 감각’에도 그릇된 편견을 심어놓았다. 세계는 태

평양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마주 보고 있다는 통념이 대표적이다. 진짜 세계에는 중심이 없으므로 우리의 시야는 사방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책은 책상 위에 놓인 ‘평면 세계지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입체적 지구본’을 통해서만 보이는 ‘지구 전체사’를 다룬다.
각 268쪽·248쪽, 각 1만9500원.

박정주, 황동하, 김재인 지음/도서출판그림씨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해리스·트럼프 TV토론 규칙 확정... 발언자 마이크만 ‘온’
▲ 트럼프 “해리스 당선되면 대공황, 3차 세계대전 발생” /사진 뉴시스

▲ 바이든, 조지아 총격 희생자 애도 성명... “무의미한 총기폭력” 근절 선언
▲ 엔비디아 “美 법무부 소환장 받은 적 없다”



▲ “바이든, US스틸 매각 저지 준비” 보도에 日 “미일 경제관계 강화 필수”
▲ 英 마지막 석탄발전소 역사 뒤안길로... “이달 말 폐기 절차 착수” /사진 뉴시스

“바람·폭포와 소나무... 산수화 속 신선처럼 거닐어 볼까”

아파트의 미학(美學)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경기 오산시 원동에 들어선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아파트 정문에는 금색의 ‘롯데캐슬’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 주변에 자리한 마등산과 수변공원을 동서 녹지축으로 연결하도록 중앙광장을 배치해 개방감을 높였다.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는 지하철 1호선 오산역, 오산환승센터,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인접해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동탄역까지 셔틀버스도 운영 중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원당초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운암플 복합단지과 스트리트형 대규모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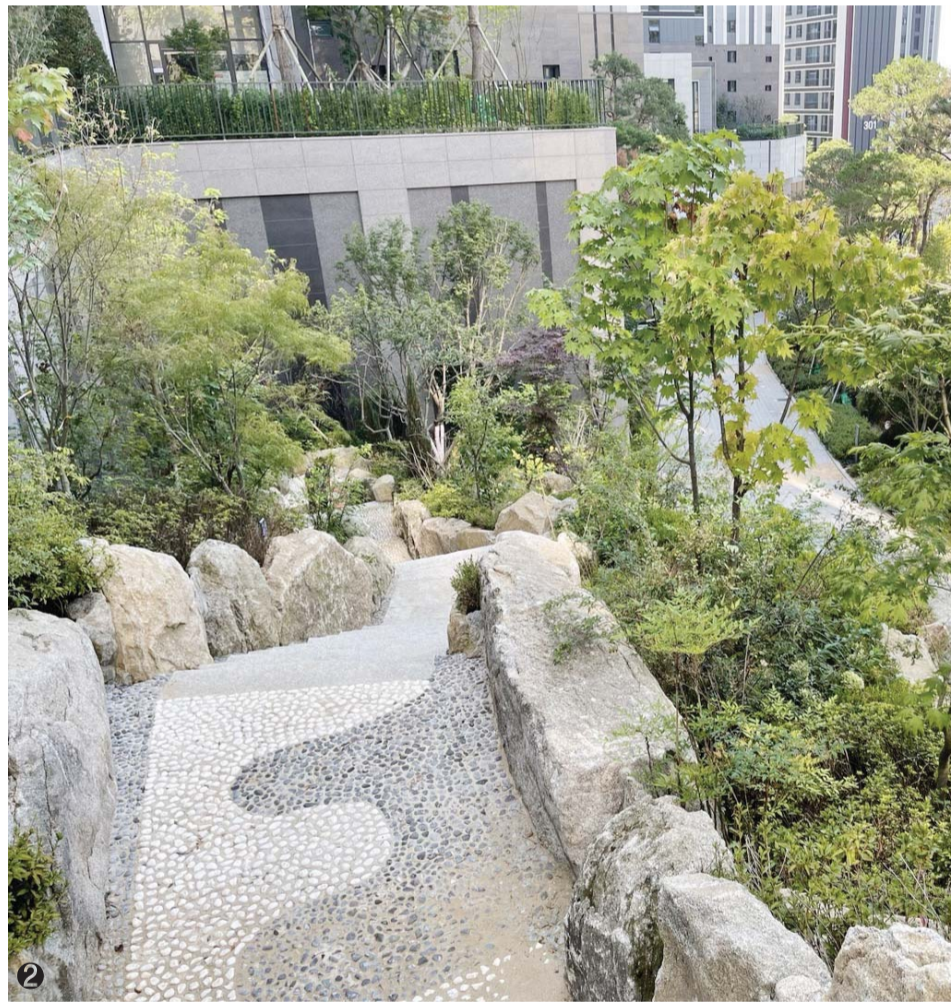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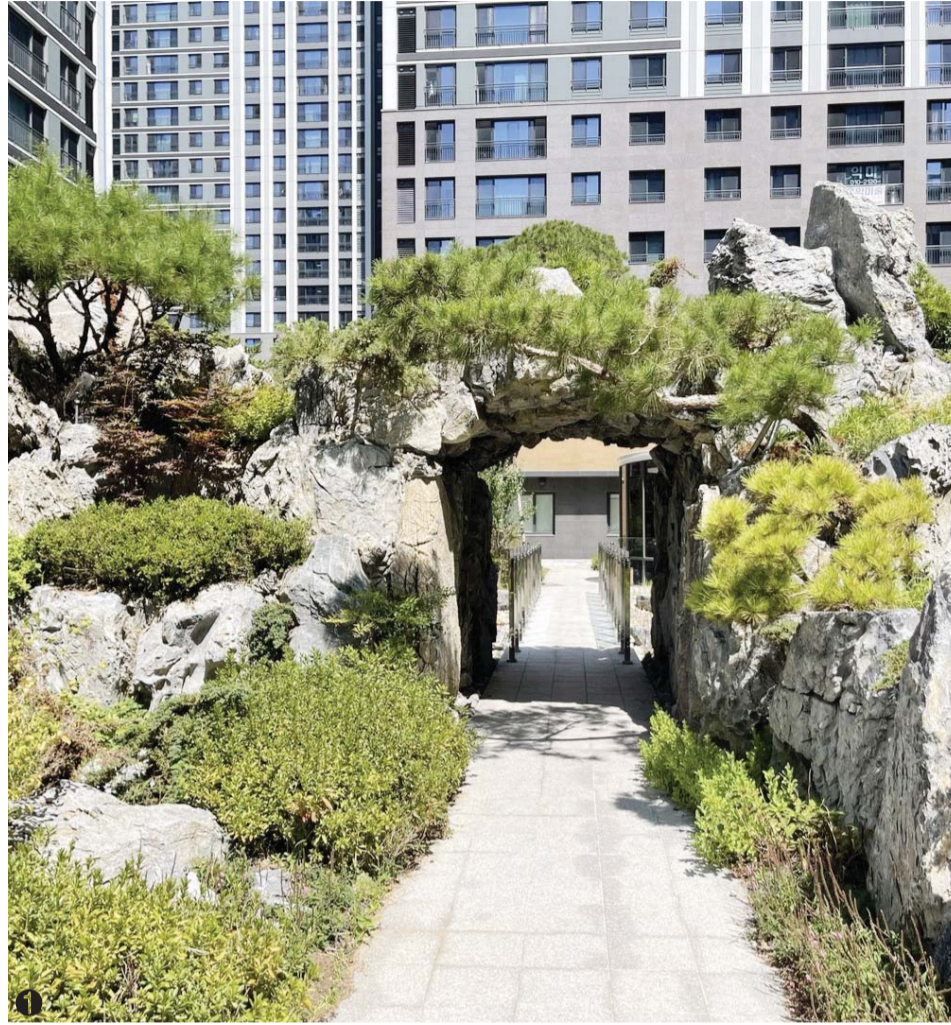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는 오산에 처음 들어선 롯데캐슬 브랜드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8개동, 2339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65㎡ ▲74㎡ ▲84㎡ ▲93㎡ ▲108㎡ ▲127㎡ ▲159㎡ ▲169㎡ ▲173㎡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판상형 구조로 적용,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전 세대에 안방 드레스룸이 도입되고 타입별로는 현관 창고, 주방 팬트리, 알파룸 등이 구성돼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세대 각 방 온도조절시스템, 현관 스마트 날씨생활정보기 등을 도입한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3053대(가구당 1.30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곳곳에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석가산과 휴게공간이 설치됐다. 바람과 폭포의 물줄기, 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공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정원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었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오산환승센터 인접 최고 23층, 18개동에 2339세대 규모 조성 배롱나무 숲 속 휴게공간 ‘아쿠아락 가든’ ‘그랜드그린테라스’ 야외 모임공간도 마련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휴게공간인 ‘아쿠아락 가든’은 리조트를 연상케하는 벽면과 배롱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 물과 석재 마감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시원한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한 나무와 다른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서 나뭇결이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는 뜻의 ‘연리지’도 볼 수 있다. 느티나무와 행나무 두 그루가 각각 다른 뿌리에서 자라 한 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 기둥에서 틈새 없이 이어져 사랑 나무라고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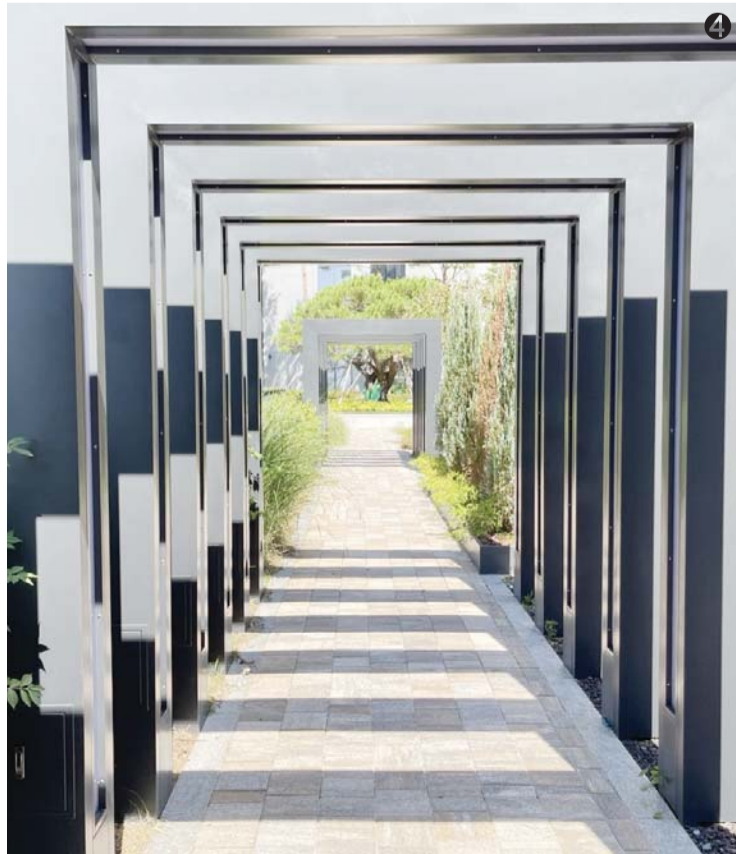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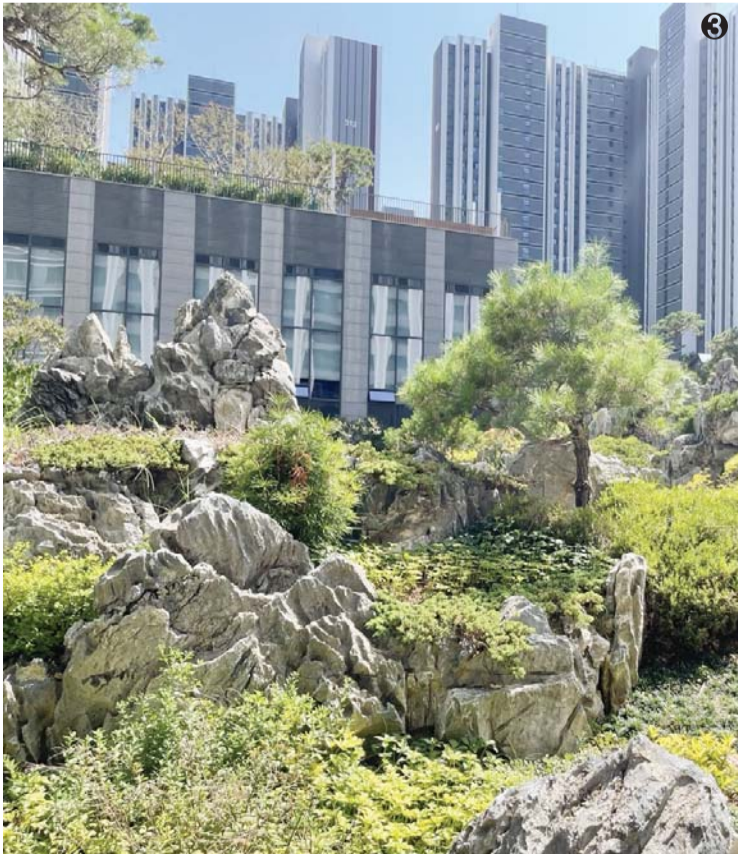
자연 속 또 다른 자연을 담은 ‘그랜드그린테라스’는 석가산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암석원과 조형물이 조화된 야외 모임공간이다. 도서관 앞에 펼쳐진 초화원에서 푸른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테라스 옆에 위치한 조각상 ‘공존’은 일렁이는 파도처럼 유기적인 곡선을 지녔다. 햇빛에 반짝거리는 바다처럼 생명력으로 가득한 오산의 풍경을 내포했다.

단지에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섰다. 약 1만1000㎡ 규모로 조성된 커뮤니티는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2개 층 높이의 멀티코트,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 등의 시설이 도입된다. 키즈카페, 키즈집 등의 키즈 특화시설과 북카페, 게스트룸, 다목적홀과 쿠킹라운지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와 공간 연출로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도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동화 테마의 놀이터 ‘그림형제의 마법책’을 비롯해 개구리를 연상시키는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높은 타워 가운데 놓인 빛의 조각을 따라 모험을 할 수 있는 ‘빛 조각아지트’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은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원 기자 jiw13@metroseoul.co.kr

① 자연의미를 강조한 조경. ② 단지 내 산책로. ③ 석가산. ④ ‘그랜드그린테라스’ 내 설치물. ⑤ 단지 내 조각상 ‘공존’.





아트랩 페스티벌
장충동 곳곳
전시장으로
나



Life

KT&G
국가고객만족도
담배부문 1위
L2



속 편안, 배 든든... 정성 담긴 한그릇에 온기 충전 한가득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본죽

죽을 통해 빠르고 건강하게 회복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한 외식 브랜드가 있다. 바로 '본죽'이다.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2002년 대학로 서울대학병원 어린이 병동 뒷골목에 1호점을 창립한 것이 시작이었다. 어린이 환자화 찾아오는 고객을 위해 정성껏 죽을 쑤던 마음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본죽은 정성과 마음을 담은 따뜻한 죽 한 그릇으로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돕는다는 일념으로 '죽=환자식'이라는 공식을 깨고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이후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자 비빔밥 메뉴를 추가한 '본죽&비빔밥' 브랜드까지 론칭, 전국 1600여 개 매장(본죽+본죽&비빔밥 합산)을 운영하고 있다.

◆미지의 영역 '죽 전문점'에 도전

창업자인 김철호 회장은 무역업체를 운영 중 IMF 위기에 회사가 부도처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위기를 맞은 그는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고, 다른 노점 가판과는 달리 위생장갑을 끼고 철저히 청결을 지키며, 호떡도 더 크게 구워냈다.

특히 언제나 정장을 입고 호떡을 판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스로를 '외식사업가'로, 리어카를 '사업장'으로 여기며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였다.

이후 김 회장은 요리학원 총무로 일하며 음식을 배우고, 과거 사업 경력을 살려 음식업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다. 당시 '죽 전문점'은 누구도 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선불리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

음식업 컨설팅을 하던 그는 직접 죽 전문점을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기존 개인이 운영하던 죽집들과 달리 카페처럼 모던하게 꾸민 분위기의 죽 전문점을 열었고, 정성과 원칙을 지켜 끓여낸 죽이 점차 입소문을 타며 여성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아플 때만 죽? 수능·동짓날에도 인기

본죽 인기 메뉴로는 '불낙죽'과 '참깨계란새우죽', '동지팔죽·단팔죽'이 있다.

불낙죽은 2010년에 진행된 '제1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제품으로, 공모전에 지원했던 당시 청주대 4학년 최성호 씨의 아이디어로 출시하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을 겨냥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의 '아니 불(不) 떨어질 낙(落)'

이란 조어에 착안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식재료도 불낙죽이라는 이름에 맞게 불고기와 낙지를 사용했다.

불낙죽은 2010년 9월 출시되어 24년 기준 해수로 15년째 베스트셀러다. 매년 수능, 시험 시즌 가장 판매량이 높은 메뉴로 수능 당일



불낙죽

운영하던 무역회사 도산 후 죽 전문점 창업 정성·원칙 지켜 끓여내... 입소문 타고 인기

수능 겨냥한 '불낙죽' 15년째 베스트셀러 반반 트렌드에 두가지 죽 더한 '반반죽' 출시 동짓날 약 6만 그릇 판매 팔죽 2종도 인기

15년 이상 계약 중인 '장수 매장' 절반 넘어 아플 때 먹는 죽 아닌 일상식으로 인식 전환 유행 타지 않는 메뉴도 안정적 운영에 기여

일 평균 약 6200그릇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개년 기준)

외식업계에서 선보인 다양한 '반반' 콘셉트가 인기를 끌면서 본죽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한 그릇으로 두 가지 맛의 죽을 즐길 수 있는 콘셉트의 메뉴인 '반반죽'을 출시하게 됐다. 특히 죽과 죽을 합쳤다는 의미의 죽(죽+죽)이라는 본죽만의 메뉴명으로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단팔죽

참깨계란새우죽은 본죽의 스테디셀러 새우죽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소한 계란과 얼큰한 참깨소스를 더해 색다르게 즐기는 메뉴다. 기존 고객들에게 친숙한 메뉴(새우죽)에 익숙한 맛의 대중적인 소스를 더해 즐기는 새로운 맛으로 신메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참깨계란새우죽은 최근 5개년 내 출시된 신메뉴 중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동짓날을 대표하는 '동지팔죽', '단팔죽' 2종도 빼놓을 수 없다. 동지팔죽은 밥알이 살아 있는 대신 새알심이 쫄쫄하고, 단팔죽은 더욱 푹 끓여 부드럽고 동지팔죽 대비 새알심이 2배 함유되어 있다. 단팔죽은 2020년 한정판매 당시 높은 판매실적을 보이며 상시 메뉴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판매 이어지고 있다. 팔죽 라인업은 2023년 동지 당일에는 전국에서 약 6만 그릇이 판매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으로서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인기 메뉴다.

◆유행타지 않는 메뉴로 장수 프랜차이즈

본죽은 불확실성이 높고 소비자 수요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가맹점의 과반수가 1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 프랜차이즈'다. 1697개의 매장 중 절반 이상인 853곳이 15년 이상 운영 중인 장수 매장으로, 그 중 291 곳은 2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초장기 운영 매장이다. 10년 이상 된 매장까지 더하면, 장수 매장은 전체 매장의 65%에 달한다.

20년 이상 매장을 운영해 온 가맹점주들은 '브랜드 신뢰도',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유행 타지 않는 메뉴' 등을 장수의 요인으로 꼽는다.

실제 '본죽'·'본죽&비빔밥'은 본사 차원의 밀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상생협력팀'이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 가맹점 협의체를 전담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죽 본부에서는 전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 교육, 예비 가맹점주를 위한 추천 상권 및 입점 제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있다.

'죽'과 '비빔밥'이라는 유행을 타지 않는 메뉴 또한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본죽·본죽&비빔밥은 죽을 환자식에서 일상식으로의 인식 전환에 성공, 소비자의 보이스와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메뉴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본죽 신메뉴 '푸팟퐁커리 게살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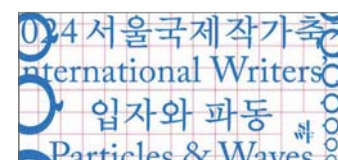
가맹점주들이 본죽 가맹점 정기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본아이에프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5연패·5할 승률 붕괴... 위기의 두산, 5강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후반기 4승·평균자책점 2.60'... 부활 찬가 부른 한화 문동주 /사진 뉴시스

▲프로축구연맹, 'K리그 아카데미' 제3차 PR·마케팅 과정 개최
▲국회 문체위, 정몽규·홍명보 부른다... '감독 선임 논란' 증인 채택



▲시각장애 대상 공필 현장영상해설 '종묘'까지 확대
▲전세계 인기 작가 만난다... 서울국제작가축제 /사진 뉴시스